조선말회화

1

류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8(1999)

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학습에서는 회화가 기본입니다. 회화는 가장 적극적인 언어행위이며 회화능력은 외국어소유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말회화》(1)은 우리 나라에 오는 류학생들이 1년동안의 예비반단계에서 기초적인 조선말회화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교과서는 3개 편으로 구성되여있다.

제 1 편에서는 초보적인 대화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650개 정도의 기초단어와 40개 정도의 기초토를 리용하여 문형에 따르는 24개의 본문을 주었다.

제 2 편에서는 류학생들이 학습과 생활의 이러저러한 정황속에서 간단한 회화를 진행할수 있도록 1500개 정도의 단어를 활용하여 주제별로 28개의 본문을 주었다.

제 3 편에서는 각이한 인물과 정황에 따라 빨리 말하고 듣는 능력을 키우며 본과에 진급하여 강의를 원만히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술영화들에서 간단한 대화장면들을 선택하여 45개의 듣기본문을 편집하였다.

제 1 편

제 1 과.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나는 박영남입니다.
○ 난 리호철입니다. 어문학부 학생입니다
— 난 경제학부 학생입니다. 동문 몇살입니까?
○ 열아홉살입니다.
— 저 동문 누굽니까?
○ 내 친굽니다.
— 저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김남수입니다.
— 남수동무는 몇살입니까?
○ 열여덟살입니다.
— 그는 어느 학부 학생입니까?
○ 력사학부 학생입니다.
—저분은 동무의 아버집니까?
○ 아닙니다, 나의 삼촌입니다.
— 저분은 동무의 어머님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단어

안녕하다	살(열아홉~)	력사
나	저	력사학부
어문	누구	분(이~)
학부	친구	아버지
어문학부	이름	아니다
학생	무엇	삼촌
경제	동무	어머니
경제학부	그	예
몇	어느	그렇다

△ 문법

—시 (존경토 ; 존경)

○ 안녕하십니까?
—ㅂ니까/습니까 (종결토 ; 물음, 높임)
○ 안녕하십니까?
○ 그렇습니까?
—는/은 (도움토 ; 지정)
○ 저 동무는 누구입니까?
○ 동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바꿈토)
○ 김남수입니다.
—ㅂ니다/습니다 (종결토 ; 알림, 높임)
○ 나는 박영남입니다.
○ 그렇습니다.
—의 (속격토 ; 소속)
○ 나의 삼촌

제 2 과. 어느것이 동무의 책입니까?

— 이건 누구의 책입니까?
○ 내 책입니다.
— 그건 동무의 가방입니까?
○ 예, 내 가방입니다.
— 저건 누구의 사전입니까?
○ 김동무의 사전입니다.
— 김동무가 누굽니까?
○ 그는 한호실 동뭅니다.
— 그 동무도 어문학부 학생입니까?
○ 아닙니다, 외문학부 학생입니다.
— 이건 김동무의 책상입니까?
○ 아닙니다, 내 책상입니다.
— 김동무의 책상은 저겁니까?
○ 예, 저겁니다.
— 그건 만년필입니까, 원주필입니까?
○ 이건 원주필입니다.
— 이건 교과섭니까?
○ 아닙니다, 참고섭니다.
— 어느것이 동무의 침대입니까?

○ 이것이 내 침댑니다.

△ 단어

어느것	사전	만년필
이것	호실	원주필
저것	외문	교과서
책	외문학부	참고서
그	책상	침대
가방		

△ 문법

—가／이 (주격토 ; 주체)
○ 김동무가 누굽니까?
—도 (도움토 ; 포함)
○ 그 동무도 학생입니까?

제 3 과. 영수동무, 뭘 합니까?

— 영수동무, 뭘 합니까?
○ 숙제를 합니다.
— 김동무도 숙제를 합니까?
○ 아닙니다. 저 동문 소설책을 읽고있습니다.
— 화보를 보는 동무는 누굽니까?
○ 내 동뭅니다.
— 그도 력사학부 학생입니까?
○ 그는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닙니다.
— 옥이는 뭘 합니까?
○ 그는 편지를 쓰고있습니다.
— 누가 노랠 부릅니까?
○ 옥이의 동생이 부릅니다.
— 피아노는 누가 칩니까?
○ 옥이의 동무가 칩니다.
—옥이의 동생은 고등중학교 학생입니까?
○ 아닙니다, 인민학교 학생입니다.
— 나이가 몇입니까?
○ 열한살입니다.

△ 단어

하다	대학	치다
숙제	편지	학교
소설책	쓰다	고등중학교
읽다	노래	인민
화보	부르다	인민학교
보다	동생	나이
우리	피아노	

△ 문법

—를／을 (대격토 ; 직접객체)
○ 노래를 부릅니다.
○ 무엇을 합니까?
—가／이 아니다 (부정)
○ 이것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 저 동무는 학생이 아닙니다.
—고있다 (지속)
○ 그는 책을 읽고있습니다.
—는 (규정토 ; 한정)
○ 화보를 보는 동무

제 4 과. 동문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 철남동문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 영남동무도 기숙사에서 생활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철이의 형님은 어디에서 일합니까?
○ 기계공장에서 일합니다.
— 그는 로동자입니까?
○ 아닙니다, 기삽니다.
— 그는 기계대학에서 공부했습니까?
○ 아닙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 이 기차는 원산에서 떠났습니까?
○ 예, 원산에서 떠났습니다.
— 동문 오늘 뭘 하겠습니까?
○ 호실에서 책을 읽겠습니다.

—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 력사책을 읽겠습니다.

△ 단어

어디	기계공장	김책공업종합대학
생활	로동자	기차
기숙사	기사	원산
형님	기계대학	떠나다
일	공부	오늘
기계	공업	무슨
공장	종합	력사책

△ 문법

—에서 (위격토 ; 장소)
  ○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았/었/였 (시간토 ; 과거)
  ○ 화보를 보았습니다.
  ○ 책을 읽었습니다.
  ○ 대학기숙사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겠 (시간토 ; 미래)
  ○ 책을 읽겠습니다.

제 5 과.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 동무들은 언제 조선에 왔습니까?
  ○ 지난달에 왔습니다.
—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합니까?
  ○ 예, 기숙사에서 삽니다.
— 지금 무엇을 배웁니까?
  ○ 조선말을 배웁니다.
— 몇시에 강의를 시작합니까?
  ○ 8시에 시작합니다.
— 오전강의가 1시에 끝납니까?
  ○ 아닙니다, 1시 10분전에 끝납니다.
— 오후에는 뭘 합니까?
  ○ 도서관에 갑니다.
— 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대학 본관뒤에 있습니다.

— 도서관에서 몇시까지 공부합니까?
  ○ 6시반까지 공부합니다.
— 몇시에 돌아옵니까?
  ○ 7시에 돌아옵니다.
— 몇시부터 저녁식사시간입니까?
  ○ 7시부텁니다.
— 철남동무 언제 원산에서 돌아왔습니까?
  ○ 어제저녁에 돌아왔습니다.
— 기차가 제시간에 도착했습니까?
  ○ 예,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 단어

언제	시(몇~)	반
조선	시작	돌아오다
오다	오전	저녁
지나다	끝나다	식사
달	분(15~)	저녁식사
지난달	전(5분~)	시간
지금	오후	어제
살다	도서관	제
배우다	가다	제시간
말	있다	도착
조선말	본관	정시
강의	뒤	

△ 문법

—에 (여격토 ; 존재위치, 도착점, 시간)
  ○ 김동무는 방에 있습니다.
  ○ 8시에 강의를 시작합니다.
  ○ 나는 지난달에 조선에 왔습니다.

—까지 (도움토 ; 마감점)
  ○ 6시반까지 공부합니다.

—ㄴ/은 (규정토 ; 한정, 과거)
  ○ 지난달에 왔습니다.
  ○ 어제 읽은 책

—들 (복수토)
  ○ 동무들은 무엇을 합니까?

—부터 (도움토 ; 시작점)

○ 몇시부터 강의를 합니까?

제 6 과. 대동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 저 강이 대동강입니까?
○ 예, 대동강입니다.
— 대동강은 어디로 흐릅니까?
○ 서해로 흐릅니다.
— 서해바다에 물고기가 많습니까?
○ 예, 많습니다.
— 물고기로 무엇을 만듭니까?
○ 여러가지 식료품을 만듭니다.
— 대동강에도 물고기가 많습니까?
○ 예, 아주 많습니다.
— 무슨 물고기가 유명합니까?
○ 숭어가 제일 유명합니다.
— 서해갑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대동강하류에 있습니다.
— 언제 서해갑문에 갑니까?
○ 다음주 일요일에 갑니다.
— 기차로 갑니까?
○ 아닙니다, 뻐스로 갑니다.

△ 단어

강	만들다	서해갑문
대동강	여러가지	하류
흐르다	식료품	다음
서해	아주	주
바다	유명하다	다음주
서해바다	숭어	일요일
물고기	제일	뻐스
많다	갑문	

△ 문법

—로/으로 (조격토; 방향, 재료, 수단)
○ 동무는 어디로 갑니까?
○ 물고기로 식료품을 만들었습니다.
○ 뻐스로 갑니다.

— 순이동무, 오후에 어디에 가겠습니까?
○ 상점에 가겠습니다.
— 누구랑 가겠습니까?
○ 영옥동무랑 가겠습니다.
— 영옥동무가 지금 호실에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호실에서 뭘 합니까?
○ 자기 오빠와 이야기를 합니다.
— 상점에서 뭘 사겠습니까?
○ 종이와 학습장, 연필을 사겠습니다.
— 상점에 승용차로 가겠습니까?
○ 아닙니다, 지하전동차로 가겠습니다.
—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 식사시간까지 뭘 하겠습니까?
○ 철수동무와 같이 탁구를 치겠습니다.
— 철수동무도 탁구를 잘 칩니까?
○ 예, 아주 잘 칩니다.
— 저녁에는 숙제를 하겠습니까?
○ 아닙니다, 학과토론준비를 하겠습니다.

△ 단어

오빠	학습장	탁구
이야기하다	연필	잘
상점	승용차	학과
자기	지하	토론
사다	전동차	준비
종이	지하전동차	

△ 문법

—와/과 (구격토; 상대, 렬거)
○ 누구와 말합니까?
○ 종이와 학습장을 사겠습니다.
—랑/이랑 (구격토; 상대, 렬거)
○ 누구랑 가겠습니까?
—와 같이 (동반)

○ 철수와 같이 상점에 갑니다.

제 8 과. 교실이 넓고 시원합니다

— 동무의 방은 어딥니까?
○ 3층 15호실입니다.
— 방이 어떻습니까?
○ 밝고 아담합니다.
— 방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습니까?
○ 책상, 걸상, 책장, 침대, 옷장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가구들이 있습니다.
— 영수동문 어떤 방에서 생활합니까?
○ 영수동무도 좋은 방에서 삽니다.
— 그 동문 혼자서 생활합니까?
○ 아닙니다, 철남동무와 함께 생활합니다.
— 3층에서는 남동무들만 생활합니까?
○ 예, 3층에서는 남동무들만 생활합니다. 녀동무들은 2층에서 삽니다.
— 텔레비죤은 3층에 있습니까?
○ 3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습니다.
— 식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숙사 아래층에 있습니다.
— 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2호교사 5층에 있습니다.
— 교실이 좋습니까?
○ 예, 교실이 넓고 시원합니다.

△ 단어

교실	걸상	녀동무
넓다	책장	텔레비죤
시원하다	옷장	식당
방	가구	아래
층	좋다	아래층
어떻다	혼자서	호(2~)
밝다	함께	교사
아담하다	남동무	

△ 문법
—고 (접속토; 합침)
○ 교실이 넓고 밝습니다.
—을 비롯해서 (시작)
○ 방에는 라지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가구들이 있습니다.
—와 함께 (동반)
○ 철남동무와 함께 생활합니다.
—만 (도움토; 제한)
○ 남동무들만 있습니다.

제 9 과.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 옥이동무, 뭘 씁니까?
○ 편지를 씁니다.
—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 어머니에게 씁니다.
— 어머니는 어디서 삽니까?
○ 개성에서 삽니다.
— 옥이동문 개성이 고향입니까?
○ 예, 개성이 고향입니다.
— 고향에는 언제 갔댔습니까?
○ 지난 겨울방학에 갔댔습니다.
— 어머니에게 달마다 편지를 보냅니까?
○ 예, 매달 보냅니다.
— 어머니에게서 매번 회답을 받습니까?
○ 물론이지요, 어머닌 꼭꼭 회답을 씁니다. 그리고 이따금 소포도 보내줍니다.
— 집에 식구가 얼마나 됩니까?
○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 할머니는 나이가 많습니까?
○ 올해 여든한살입니다.
— 건강은 어떻습니까?
○ 아직 정정하십니다. 꽃밭에 물도 주고 바느질도 하십니다.

△ 단어

개성	꼭꼭	계시다
고향	그리고	올해
겨울	이따금	건강
방학	소포	아직
겨울방학	주다	정정하다
보내다	집	꽃밭
매달	식구	바느질
매번	얼마나	
회답	되다	
물론	할머니	

△ 문법

—에게 (여격토; 간접객체)
 ○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댔 (시간토; 앞선과거)
 ○ 지난 겨울에 고향에 갔댔습니다.
—마다 (도움토; 망라)
 ○ 어머니에게 달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에게서 (위격토; 출발점)
 ○ 어머니에게서 매달 편지를 받습니다.
—지요 (종결토; 알림, 높임)
 ○ 물론이지요.
—지 않다 (부정)
 ○ 많지 않습니다.
—아/어/여주다 (봉사)
 ○ 저기서 표를 내여줍니다.

제10과. 빵보다 국수를 좋아합니다

— 오늘 어디에 갔댔습니까?
 ○ 대성산에 갔댔습니다.
— 뻐스로 갔댔습니까?
 ○ 아닙니다. 지하전동차로 갔댔습니다. 여름에는 뻐스보다 지하전동차가 더 좋습니다.
— 대성산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 제일 먼저 혁명렬사릉을 돌아보았습니다.
— 그 다음 어디에 갔습니까?
 ○ 유희장에 갔습니다.

— 관성렬차를 타보았습니까?
 ○ 예, 타보았습니다.
— 동무들이 좋아했겠습니다.
 ○ 그럼요, 모두 아이들처럼 기뻐했습니다.
— 점심식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 소문봉식당에서 시원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 철남동무도 국수를 좋아합니까?
 ○ 예, 난 빵보다 국수를 좋아합니다.
— 지금 피곤하지 않습니까?
 ○ 조금 피곤합니다.
—저녁엔 일찍 자겠습니까?
 ○ 아닙니다, 대성산유원지에 대한 감상글을 쓰겠습니다.

△ 단어

빵	렬사릉	소문봉
국수	혁명렬사릉	먹다
좋아하다	유희장	피곤하다
산	돌아보다	조금
대성산	그럼	일찍
때	모두	자다
타다	아이	유원지
먼저	기뻐하다	대성산유원지
혁명	점심	감상
렬사	점심식사	글
릉	봉	감상글
		놓다

△ 문법

—ㄹ/을 때 (시간)
 ○ 갈 때는 뻐스를 탔습니다.
—아/어/여 (접속토; 합침말조성)
 ○ 돌아보다, 써놓다
—아/어/여보다 (시험)
 ○ 타보았습니다.
—아/어/여하다 (형용사→동사)
 ○ 좋아합니다.
—요 (종결토; 알림, 높임)
 ○ 그럼요.
— 처럼 (도움토; 비교)
 ○ 아이들처럼 기뻐합니다.

—보다 (도움토 ; 비교)
ㅇ 빵보다 국수가 좋습니다.
—에 대하여 (대상)
ㅇ 대성산에 대한 글을 씁니다.

제11과.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영남동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ㅇ 일기예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이제 알아봅시다.
— 기상통보 전화번호가 몇번입니까?
ㅇ 112번입니다.
— 평양지방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오늘 남서풍이 2~5메터 불고 약간 흐리겠다고 합니다.
ㅇ 기온은 얼마입니까?
— 오늘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2도이고 오늘낮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로 예견된답니다.
ㅇ 날씨가 좋군요.
— 어제는 날씨가 나빴지요?
ㅇ 예, 어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 하늘도 우리가 만경대에 가는 날을 아는것 같군요.
ㅇ 그런것 같습니다.
— 만경대는 경치가 어떻습니까?
ㅇ 참 아름답습니다.
— 빨리 가보고싶습니다.
ㅇ 떠날 준비를 서두릅시다.

△ 단어

날씨	알리다	높다
일기	남서풍	나쁘다
예보	메터(5~)	비
일기예보	불다	바람
듣다	약간	하늘
기상	흐리다	만경대
통보	기온	날
기상통보	얼마	알다
평양	아침	경치
지방	낮다	참
평양지방	도(15~)	아름답다
	예견되다	빨리
		서두르다

△ 문법
—지 못하다 (부정)
ㅇ 듣지 못했습니다.
—ㅂ시다/읍시다 (종결토 ; 추김, 높임)
ㅇ 알아봅시다, 앉읍시다.
—리 (상토 ; 시킴)
ㅇ 알립니다.
—다고 하다 (전달)
ㅇ 김동무가 온다고 합니다.
— 답니다 (종결토 ; 전달, 알림, 높임)
ㅇ 김동무가 온답니다.
—군요 (종결토 ; 높임, 감탄)
ㅇ 날씨가 좋군요.
—는것 같다 (현재추측)
ㅇ 김동무가 오는것 같습니다.
—ㄴ/은것 같다 (과거추측)
ㅇ 김동무가 온것 같습니다.
—고싶다 (희망)
ㅇ 가보고싶습니다.
—ㄹ/을 (규정토 ; 한정)
ㅇ 떠날 준비를 서두릅니다.

제12과. 꽃들이 곱게 폈군요

— 여긴 대학온실입니까?
ㅇ 아닙니다, 우리 학급 온실입니다.
— 학급에도 온실이 있습니까?
ㅇ 예, 학급동무들이 방과후에 관리하는 온실입니다.
— 꽃들이 참 곱게 폈군요.
ㅇ 예, 여러가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 이 꽃은 **김일성**화가 아닙니까?
ㅇ 예, **김일성**화입니다.
— **김일성**화는 모양과 색갈도 특이하고 향기도 특이합니다. **김정일**화도 있습니까?
ㅇ 저쪽을 보십시오.

— 참 대단합니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볼수록 아름다운 꽃입니다.

○ 그렇습니다, 이 꽃들에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습니다.

— 이 꽃들은 누가 피웠습니까?

○ 우리 동무들이 피웠지요.

— 그렇습니까?! 정말 충성심이 높은 동무들입니다.

△ 단어

꽃	만발하다	대단하다
곱다	**김일성**화	세계
피다	모양	뜨겁다
여기	색갈	마음
온실	특이하다	깃들다
학급	향기	피우다
방과후	**김정일**화	충성심
관리	저쪽	

△ 문법

—게 (상황토 ; 정도)

○ 꽃이 곱게 폈습니다.

—십시오 (종결토 ; 시킴, 높임)

○ 저기를 보십시오.

—ㄹ/을수록 (상황토 ; 정도)

○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뿐아니라 (렬거, 강조)

○ 철수동무뿐아니라 옥이동무도 갑니다.

—아/어/여있다 (상태지속)

○ 깃들어있습니다.

—우 (상토 ; 시킴)

○ 이 꽃을 누가 피웁니까?

제13과.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 어제 빌린 소설책을 가져왔습니다.

○ 벌써 다 읽었습니까?

— 예, 시작한 김에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 정열이 대단합니다. 오늘 피곤하지 않습니까?

— 피곤한줄 모르겠습니다.

○ 소설의 내용이 쉽게 리해됩니까?

— 예, 리해됩니다.

○ 모를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 많지 않습니다. 힘든 어휘들은 사전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 오늘은 무슨 책을 빌리겠습니까?

— 새로 나온 소설책이 또 있습니까?

○ 새로 나온 소설책은 다 빌려간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오십시오.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까?

○ 일요일엔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 신문, 잡지는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 신문, 잡지 열람실이 2층에 따로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 단어

밤	힘	월요일
새다	들다	다시
빌리다	힘들다	열다
가져오다	어휘	대출
벌써	좀	신문
김(시작한 ～에)	찾아보다	잡지
정열	새로	열람실
내용	나오다	신문, 잡지열람실
쉽다	또	따로
리해	빌려가다	고맙다
모르다	다	안녕히
단어	일요일	

△ 문법

—도록 (상황토 ; 정도)

○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ㄴ/은줄 모르다 (상태부정)

○ 피곤한줄 모르겠습니다.

—ㄹ/을수 있다 (가능성)

○ 신문은 어디에서 볼수 있습니까?

제14과. 그는 자기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 김동무, 아까 손님이 왔댔습니다.
○ 나한테요? 몇시에 왔댔습니까?
— 3시에 왔댔습니다. 그는 자기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 내 친구들중에는 철수라는 친구가 세명이나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키가 얼마나 큽니까?
— 김동무보다 조금 더 클것 같습니다.
○ 물리학부에서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옳습니다. 물리학부 4학년이라고 했습니다.
○ 그는 내 고향친굽니다.
— 저녁 8시에 평양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 누가 온답니까?
— 누나가 온다고 했습니다.
○ 그 친구의 누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입니다. 아마 농업대회에 올라올겁니다.
— 그럼 빨리 식사를 하고 떠나십시오.
○ 동문 식사를 했습니까?
— 나도 식사전입니다.
○ 그럼 함께 식사합시다.

△ 단어

소개	물리학부	관리
아까	학년	위원장
손님	역	관리위원장
중(친구들~에)	평양역	아마
명(세~)	만나다	농업
키	누나	대회
크다	협동	농업대회
더	농장	올라오다
물리	협동농장	

△ 문법

—라고/이라고 (접속토; 알림전달)
○ 그는 자기 동무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테 (≈에게)
○ 나한테요?
—라는 (알림전달+규정)
○ 김철수라는 동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나 (도움토; 강조)
○ 책을 5시간이나 읽었습니다.
—ㄹ/을것 같다 (미래추측)
○ 클것 같습니다.
—라고 하다 (알림전달)
○ 그는 물리학부 학생이라고 합니다.
—자고 하다 (추김전달)
○ 만나자고 했습니다.
—답니까 (종결토; 전달, 물음, 높임)
○ 누가 온답니까?
—ㄹ/을것이다 (추측)
○ 올라올겁니다.

제15과. 도서관에 가서 무슨 공불 했습니까?

— 도서관에서 이제 옵니까?
○ 예, 이제 오는 길입니다.
— 도서관에 가서 무슨 공불 했습니까?
○ 새로 나온 잡지들을 읽었습니다.
— 잡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 예, 과학잡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숙제는 다 했습니까?
○ 예, 래일 배울 본문도 몇번 읽어보았습니다.
— 벌써 예습도 했습니까?
○ 공부는 언제나 앞당겨 하는것이 좋지요. 영남동무도 오늘 과제를 다 했습니까?
— 다 못했습니다.
○ 리해되지 않는것이 있습니까?
— 문화어와 표준어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참고서들을 다 읽어보았습니까?
— 참고서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 그럼 앉아서 함께 토론해봅시다.

△ 단어

이제	본문	못
길	읽어보다	문화어
많이	예습	표준어
들어오다	언제나	차이
과학잡지	앞당기다	않다
래일	과제	

△ 문법

—아서/어서/여서 (접속토 ; 선후, 방식)

○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16과. 명수동무를 바래워주러 갑니다

— 철수동무, 정거장엔 왜 갑니까?

○ 명수동무를 바래워주러 갑니다.

— 명수동무가 어데 갑니까?

○ 예, 함흥에 갑니다.

— 무엇하러 함흥에 갑니까?

○ 견학을 갑니다.

— 함흥에 가서 무슨 견학을 합니까?

○ 주로 공장견학을 합니다.

— 함흥에 공장이 많습니까?

○ 예, 함흥은 공업도시입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총국을 비롯하여 큰 공장, 기업소들이 많습니다.

— 함흥에 경치좋은곳도 있습니까?

○ 예, 동흥산도 경치가 좋고 마전유원지도 경치가 참 좋습니다.

— 명수동무네 학급이 모두 갑니까?

○ 예, 모두 갑니다.

— 언제 돌아옵니까?

○ 이달말쯤에 돌아올겁니다.

△ 단어

바래우다	공업도시	동흥산
정거장	비날론	마전유원지
왜	련합	이달
함흥	기업소	말(이달~)
견학	2.8비날론련합기업소	쯤(2시~)
주로	룡성기계련합총국	
도시	곳	

△ 문법

—러 (접속토 ; 목적)

○ 공부하러 도서관에 갑니다.

제17과. 질은 좋은데 형식이 마음에 안듭니다

— 판매원동무, 대학생가방을 좀 봅시다.

○ 어느걸 보시겠습니까?

— 저쪽에 있는 검은색가방을 봅시다.

○ 마음에 듭니까?

— 질은 좋은데 형식이 마음에 안듭니다.

○ 이건 어떻습니까?

— 이게 괜찮군요, 형식이 마음에 듭니다. 색갈도 좋구요.

○ 그걸 사시겠습니까?

— 예, 그리고 저 빨간색가방도 좀 봅시다.

○ 저건 녀자용인데요

— 압니다, 녀동생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 녀동생도 대학생입니까?

— 예, 평양의학대학에 다닙니다.

○ 그렇군요, 아마 이 가방이 어울릴겁니다. 녀대학생들이 많이 사간답니다.

— 고맙습니다. 값이 모두 얼맙니까?

○ 16원 70전입니다.

— 돈을 직접 여기에 뭅니까?

○ 예, 그렇게 하세요.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또 오세요.

△ 단어

질	괜찮다	어울리다
형식	빨갛다	녀대학생
안	녀자용	사가다
마음에 들다	녀동생	값
판매원	그러하다	원(10~)
대학생	의학	전(50~)
검다	평양의학대학	돈
색	다니다	직접

물다

△ 문법

—ㄴ(은)데 (접속토 ; 맞섬)

ㅇ 형식은 좋은데 색이 나쁩니다.

—구요 (고+요)

ㅇ 색이 좋습니다. 형식도 좋구요.

—ㄴ/은데요 (ㄴ데+요)

ㅇ 이건 녀자용인데요.

—려고 (접속토 ; 의도)

ㅇ 동생에게 주려고 가방을 샀습니다.

—세요 (종결토 ; 시킴, 높임)

ㅇ 안녕히 가세요.

제18과.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 김동무, 이젠 기숙사에 돌아갑시다.

ㅇ 벌써 가겠습니까?

— 저녁식사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ㅇ 그렇게 됐군요. 함께 갑시다.

— 학과토론준비는 다 했습니까?

ㅇ 토론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방조받을게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ㅇ 그게 좋겠습니다.

— 방조받을게 뭡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ㅇ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맞으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좀 봐주겠습니까?

— 참 좋은 일입니다.

ㅇ 잘 쓰지 못했습니다.

— 일없습니다. 김동무 2월 16일을 맞으면서도 글을 썼지요?

ㅇ 예, 그저 글쓰기련습을 하고있습니다.

—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보고 창작강좌선생님의 지도를 받도록 소개해주겠습니다.

ㅇ 정말 고맙습니다.

△ 단어

돌아가다	맞다	글쓰기련습
그런데	시	중요하다
방조	보아주다	창작
받다	일없다	강좌
어서	월	창작강좌
어버이	2월	선생님
수령님	그저	지도
탄생일	글쓰기	
태양절	련습	

△ 문법

—며 (접속토 ; 동시)

ㅇ 일하며 배웁니다.

—면서 (접속토 ; 동시)

ㅇ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제19과. 힘들지만 끝까지 풀겠습니다

— 수학문제를 다 풀었습니까?

ㅇ 아직 다 풀지 못했습니다.

— 힘듭니까?

ㅇ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풀겠습니다.

— 무슨 일에서나 끝장을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ㅇ 우린 학년말시험을 맞으며 온 학급이 모두 최우등을 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 정말 대단합니다, 시험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ㅇ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 몇과목을 칩니까?

ㅇ 네개 과목을 칩니다.

— 시험기간은 몇주간입니까?

ㅇ 석주간입니다.

— 시험기간은 짧지 않군요. 그러나 온 학급이 최우등을 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ㅇ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 참 좋은 일입니다. 나도 힘껏 돕겠습니다.

ㅇ 고맙습니다.

△ 단어

끌	온	짧다
풀다	최우등	그러나
수학	결의	그래서
문제	과목	모든
끝장	치다	서로
끝장을 보다	개(네~)	돕다
시험	기간	힘껏
학년말시험	주간	

△ 문법

—지만 (접속토 ; 맞섬)
 ㅇ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제 2 0 과. 그리로 가면 안됩니다

— 손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ㅇ 어서 말씀하십시오.
— 국제통신쎈터가 어딥니까?
 ㅇ 여기서 한 600메터 가면 됩니다.
— 뻐스에서 내리면 가까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ㅇ 뻐스를 잘못 탔습니다.
— 가는 길을 좀 가리켜주십시오.
 ㅇ 이 길로 곧추 한 400메터쯤 가십시오. 그다음 지하건늠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200메터쯤 가면 됩니다. 저기 높은 건물이 보입니까?
— 예, 보입니다.
 ㅇ 그게 바로 국제통신쎈터입니다.
— 그럼 이 왼쪽길로 곧추 가면 안됩니까?
 ㅇ 그리로 가면 안됩니다. 길이 막혔지요.
— 그래요?
 ㅇ 내가 거기까지 안내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 괜찮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ㅇ 안녕히 가십시오.

△ 단어

그리로	잘못	왼쪽길
말씀	가리켜주다	안되다
묻다	곧추	막다
국제	건늠길	거기
통신	지하건늠길	안내
쎈터	건느다	없다
국제통신쎈터	왼쪽	미안하다
한	저기	대단히
내리다	건물	
가까이	바로	

△ 문법

—면 (접속토 ; 가정)
 ㅇ 동무가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면 안되다 (금지)
 ㅇ 가면 안됩니다.
—이 (상토 ; 피동)
 ㅇ 대학건물이 보입니다.
—히 (상토 ; 피동)
 ㅇ 길이 막혔습니다.
—는데 (접속토 ; 맞섬)
 ㅇ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나쁩니다.
 ㅇ 김동무는 기숙사에 가는데 리동무는 도서관에 갑니다.

제 2 1 과.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합니까?

— 김동무, 청춘거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ㅇ 청춘거리엔 왜 가려고 합니까?
— 오늘 태권도전당에서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을 한답니다.
 ㅇ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함께 갑시다.
— 거 참 잘됐습니다.
 ㅇ 태권도전당에 가자면 지하철도를 타고가서도 많이 걸어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갈가요?
—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천천히 갑시다.
 ㅇ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합니까?

ㅇ 광복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 거기서부터 걷습니까?

ㅇ 예, 광복역에서 내리면 인차 광복거리가 시작됩니다. 이 거리를 따라 20분쯤 걸으면 청춘거리가 나타납니다.

— 청춘거리에 경기관들이 많습니까?

ㅇ 예, 서산축구경기장, 태권도전당, 종경기관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경기장, 경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촌이라고 하지요.

— 선수들이 거기에서 훈련합니까?

ㅇ 예,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합니다.

△ 단어

청춘	철도	축구
거리	지하철도	경기장
청춘거리	걷다	서산축구경기장
태권도	택시	종경기관
전당	필요	현대적
태권도전당	천천히	체육
선수권	광복	촌
선수권대회	광복역	체육촌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인차	훈련
개막	광복거리	경기
식	나타나다	
개막식	경기관	

△ 문법

—아야/어야/여야 하다 (의무성)

ㅇ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려면 (접속토; 려+면)

ㅇ 대성산에 가려면 지하전동차를 타십시오.

—자면 (접속토; 자+면)

ㅇ 청춘거리에 가자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ㄹ/을가요 (종결토; 물음, 높임)

ㅇ 걸어서 갈가요? (예, 그럽시다)

ㅇ 내가 갈가요? (예, 가십시오)

ㅇ 김동무가 갈가요? (아마 갈겁니다)

—를/을 따라 (방향)

ㅇ 거리를 따라 갑니다.

제22과. 여기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 들어가도 좋습니까?

ㅇ 예, 들어오십시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ㅇ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 교과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ㅇ 김선생님은 지금 안계십니다.

—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ㅇ 아닙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곧 오실겝니다.

— 여기서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ㅇ 예, 거기 앉아서 이 화보나 보십시오. 동무 혼자 왔습니까?

— 다른 동무들은 회의에 가고 나만 교과서를 받으려고 남았습니다.

ㅇ 혼자서 교과서를 다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ㅇ 요즘 기숙사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 아무 불편도 없습니다. 생활조건도 좋고 학습조건도 좋습니다.

ㅇ 그래야지요. 마침 김선생님이 오십니다. 어서 만나보십시오.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ㅇ 안녕히 가십시오.

△ 단어

들어가다	다르다	불편
멀리	회의	점(불편한～)
곧	남다	아무
기다리다	가다	조건
혼자	요즘	마침

△ 문법

—아도/어도/여도 (접속토; 조건)

ㅇ 들어가도 좋습니까?

—아도 되다 (허락)

ㅇ 돌아가도 됩니다.

—아야/어야/여야지요 (—아야/어야, 여야 하다+지요)

ㅇ 편지를 써야지요.

ㅇ 꽃씨를 받아야지요.

제23과. 갔다가 인차 돌아서겠습니다

— 원산에 언제 가겠습니까?
○ 오늘 떠나겠습니다.
— 자동차로 가겠습니까?
○ 아닙니다, 기차로 가겠습니다.
— 기차로 몇시간 걸립니까?
○ 오늘밤 0시 15분차를 타면 래일 아침 8시에 원산에 도착합니다.
— 피곤하겠군요.
○ 일없습니다. 자면서 가겠는데요.
— 원산에서 며칠 묵겠습니까?
○ 아닙니다. 오늘 갔다가 래일 인차 돌아서겠습니다.
— 그렇게 빨리 돌아서면 언제 일을 보겠습니까?
○ 하루만 일을 보면 됩니다.
— 오래간만에 경치좋은 항구도시에 가는데 송도원에 가서 휴식도 좀 하십시오.
○ 그럴새가 없습니다. 도일보사에서 낮에 일을 보면 저녁차를 타겠습니다.
—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 고맙습니다.

△ 단어

돌아서다	하루	새(사이)
자동차	오래간만	도일보사
걸리다	항구	낮
며칠	항구도시	저녁차
묵다	송도원	주의하다
일을 보다	휴식	

△ 문법

—다가 (접속토; 중단)
○ 학교에 가다가 철수를 만났습니다.

제24과. 모란봉에 오르니 참 좋군요

— 저기가 을밀대입니다.
○ 그렇습니까? 빨리 올라갑시다.

— 경치가 어떻습니까?
○ 모란봉에 오르니 참 좋군요, 온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 저기가 동평양지굽니다. 주체사상탑이 보이지요?
○ 예, 그앞에 분수도 보입니다.
— 저기는 광복거립니다.
○ 옳습니다. 전번 만경대견학을 갈 때 저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 저쪽이 우리 대학입니다.
○ 2호교사가 보이는군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대성산이지요? 장수봉, 소문봉도 알립니다.
— 대성산을 잘 아는군요.
○ 예, 지난주에 혁명렬사릉에 갔다가 장수봉, 소문봉에도 올라가보았습니다.
— 참 잘했습니다.
○ 평양은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는곳마다에 공원, 유원지가 있고 거리도 아름답게 꾸렸습니다.
— 예, 그래서 평양은 공원속의 도시라고 하지요, 이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가고싶지 않군요, 피곤이 씻은듯이 사라집니다.

△ 단어

모란봉	동평양	옳다
오르다	지구	전번
을밀대	동평양지구	지나가다
올라가다	주체	장수봉
평양시	사상	지난주
눈	탑	공원
보이다	주체사상탑	속
한눈에 보이다	앞	씻다
바라보이다	분수	사라지다

△ 문법

—니 (접속토; 원인 전제)
○ 김동무가 오늘 떠나니 좀 바래워주십시오.
—듯이 (상황토; 비교)
○ 피곤이 씻은듯이 사라집니다.

제 2 편

제 1 과. 인사

1 : 안녕하십니까?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 : 수고한게 없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누워서 왔는데요.
1 : 건강은 어떻습니까?
2 : 보다싶이 이렇게 건강합니다.
1 : 그럼 좋습니다. 피곤하시겠는데 오늘은 좀 쉬고 래일 다시 만납시다.
2 : 고맙습니다.
1 : 그럼 편히 쉬십시오.
2 : 안녕히 가십시오.

1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 아, 최선생입니까? 참 일찍 나오셨습니다.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1 : 예, 잘 잤습니다.
2 : 혹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1 :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2 : 어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1 : 아무 불편도 없습니다. 마치 제집에 온것 같습니다.
2 : 그렇다면 나도 마음이 놓입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2 : 아니, 이거 김동무가 아닙니까?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1 :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2 : 잘 지냈지요, 건강도 좋구요.
1 : 가족들도 다 편안하십니까?
2 : 예, 다 잘 있습니다. 참 동생이 기계대학에 다닌다고 했지요?
1 : 벌써 대학을 졸업하구 기사루 일한답니다.
2 : 세월이 정말 빠르군요.

보충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수고하는게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편히 다녀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편히 주무십시오.
—조심히 다녀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잘 다녀가십시오.

△ 단어

인사	아	아니
멀다	선생	정말
먼길	주무시다	동안
수고	잠	지내다
자리	잠자리	가족
편안히	별	편안하다
눕다	별말씀	졸업
이렇다	덕분	세월
건강하다	마치	빠르다
쉬다	제집	다녀가다
편히	마음이 놓이다	조심히

△ 문법

—느라고 (접속토; 원인)
○ 오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다면 (접속토; 다+면)
○ 동무가 좋다면 나도 좋습니다.
—다싶이 (비교)
○ 보다싶이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제 2 과. 소개

1 :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2 : 안녕하십니까? 저를 왕동복이라고 불러주십시오.
1 : 동무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2 : 중국에서 왔습니다.
1 : 오늘 이렇게 알게 되여 기쁩니다.
2 : 저도 역시 기쁩니다.
1 : 그럼 제 동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 동무는 박영남입니다. 조선어문학부에서 공부합니다.

2: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이 동무는 최행복동무입니다. 력사학부에서 공부합니다.

2: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1: 오늘부터 우리는 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2: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1: 수고는 무슨 수고겠습니까? 우리 모두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살면서 공부를 잘합시다.

2: 정말 고맙습니다.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누구신지요?

1: 선생님, 실례합니다. 전 중국에서 온 실습생 진해입니다.

2: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 어제 왔습니다.

2: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 지난해 실습을 마치고 간 최송동무를 기억하십니까?

2: 기억하구말구요. 그래 그 동무를 잘 압니까?

1: 예, 지금 과학원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실습간다고 하니까 선생님한테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 그래요, 후에 그에게 편지할 기회가 있으면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그런데 동무는 어느 학부에서 무슨 실습을 얼마동안 하게 됩니까?

1: 저는 열달동안 조선어문학부에서 조선어실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방조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2: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1: 선생님, 바쁘시겠는데 실례했습니다.

2: 일없습니다. 앞으로도 강좌에 자주 들리시오.

1: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가십시오.

1: 저의 동무들을 소개해드려도 좋겠습니까?

2: 어서 소개해주십시오.

1: 저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2: 저분은 우리 강좌장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대표단 단장입니다.

1: 이 동무가 강사입니다. 이번에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묘향산에 대하여 설명해줄겁니다.

2: 반갑습니다. 묘향산에 깃든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1: 이 선생님이 동무가 늘 만나보고싶다던 리영호선생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쓰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실습기간 선생님의 강의를 받고싶습니다.

△ 단어

저	실습생	조선어
나라	해	바쁘다
기쁘다	지난해	자주
역시	마치다	들리다
제	기억	강좌장
감사하다	과학원	대표단
처음	연구사	단장
뵙다	이번	강사
반갑다	**김일성**종합대학	묘향산
도와주다	전하다	설명
바라다	달라다	재미
같이	부탁	재미나다
친형제	기회	늘
실례	얼마동안	실습기간

△ 문법

—고말다 (강조)

ㅇ 기억하고말구요.

—기 (바꿈토)

ㅇ 도와주기 바랍니다.

—ㄴ/은지 알다 (사실)

ㅇ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하다 (시킴, 전달)

ㅇ 공부를 잘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오 (종결토, 시킴, 높임)

ㅇ 여기에 앉으시오.

—다던 (다+던)

ㅇ 온다던 김동무는 오지 않았어요.

제 3 과. 사의, 사과

1 : 친절히 안내해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 :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리해되지 않는 점은 더 없습니까?
1 : 이젠 없습니다. 강사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다 리해하였습니다. 견학을 통하여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2 :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였다니 저도 기쁩니다.

1 : 그동안 온갖 편의를 다 보장해주어 고맙습니다.
2 : 별말씀 다 하십니다. 그건 우리들의 의무인데요.
1 : 아닙니다. 저의 병치료에 바치신 의사선생님과 간호원동무의 진심을 어찌 의무라고만 하겠습니까? 저의 학습까지 성의껏 도와준 간호원동무의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2 : 고맙습니다.

1 : 늦어서 미안합니다.
2 : 일없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1 : 고맙습니다.
2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못했습니다.

1 : 공부를 방해해서 안됐습니다.
2 : 일없습니다. 저는 벌써 숙제를 다 끝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1 : 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2 : 그 일때문에 우정 왔습니까? 전화를 해도 되겠는데요.
1 : 아닙니다. 약속은 곧 법인데 사죄를 해야지요.
1 : 진심으로 도와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2 :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1 : 바쁘시겠는데 비행장까지 나와 따뜻이 맞아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 천만의 말씀입니다.

1 :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초청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2 : 천만의 말씀입니다.

1 :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늘 마음을 쓰신 어머니의 수고를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2 :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기쁘네.

1 : 바쁘시겠는데 이렇게 병원에까지 찾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2 : 늦어와 도리여 미안합니다.

1 :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을 찾아주시고 저의 설명을 주의깊게 들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2 :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1 : 방조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남의 일을 제일처럼 걱정해주시는 당신과 같은분은 처음 봤습니다.
2 : 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왜 남의 일이겠습니까.

1 :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에 대하여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2 : 저희들의 성의가 다소나마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면 우리도 기쁩니다.

1 : 제가 요구하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다해결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 앞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 바랍니다.

1 :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2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동무를 알게 되여 기쁩니다.

1 :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 미안합니다.
2 :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오는 길입니다.

1 : 실례했습니다. 제가 주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2 : 일없습니다. 그럴수 있지요.

1 : 전화거는걸 잊어서 죄송합니다.
2 : 그런걸 가지고 뭘 그럽니까. 일없습니다.

1 :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까?
2 : 일없습니다. 한 10분쯤 기다렸는데 뭐랍니까?

1 : 회답편지를 제때에 보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2 : 무슨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1 : 바쁘시겠는데 이렇게 전화로 찾아 미안합니다.
2 : 일없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 : 미안합니다. 제가 그만 방을 헛갈렸습니다.
2 : 일없습니다.

1 : 그만 저의 부주의로 해서 가구에 손상을 주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2 : 일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 바쁜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2 : 괜찮습니다.

1 : 바쁘시겠는데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정말 안됐습니다.
2 : 일없습니다. 앞으로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사양말고 제기하세요.

△ 단어

사의	새벽	음식	폐
사과	열이 나다	마음을 쓰다	끼치다
친절히	방해	두고두고	페를 끼치다
천만의 말씀	끝내다	생각	방금
박물관	약속	병원	주의
자세히	지키다	늦어오다	전화
통하다	죄송하다	도리여	걸다
도움	때문	고장	제때
온갖	우정	주의깊다	사정
편의	법	오히려	그만
보장	사죄	저희	헛갈리다
의무	원	감사	부주의
병치료	비행장	남	손상
바치다	따뜻이	걱정	너무
의사	드리다	당신	빼앗다
간호원	성대하다	다소	무리하다
진심	연회	기쁨	애로
어찌	차리다	요구	사양
성의껏	초청하다	과학	제기
잊다	표하다	사업	
늦다	바(표하는~)	성과	

△ 문법

—다니 (다+니)
 ○ 김동무가 찾는다니 가보겠습니다.
—기 위해 (목적)
 ○ 동무를 만나기 위해 정거장에 나갔습니다.
—네 (종결토 ; 알림, 같음)
 ○ 김동무가 찾네.
—ㅁ/음에도 불구하고 (대립)
 ○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줍니다.
—나마/이나마 (도움토 ; 양보)
 ○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겠습니다.
—ㄹ/을지 (접속토 ; 물음)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랍니까? (종결토 ; 전달, 물음, 높임)
 ○ 저 동무가 뭐랍니까?
—ㄹ/을만하다 (가능성)
 ○ 들어갈만합니까?
—로/으로 하여 (원인)
 ○ 고향생각으로 해서 자지 못했습니다.
—지 말다 (금지)
 ○ 걱정하지 마시오.

제4과. 희망, 청원

1 : 오늘밤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줄수 없겠는지요?
2 :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보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1 : 조선민요를 몇곡 배우고싶어서 그럽니다.
2 : 그렇다면 노랜 잘 부르지 못하지만 몇곡 배워드리지요. 저녁식사후에 인차 가겠습니다.
1 : 고맙습니다.

1 : 5월1일경기장에서 하는 축구경기를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볼수 있습니까?
2 : 언제 한답니까?

1 : 래일 오후 4시부터 한답니다.
2 : 표는 제가 구하겠으니 저와 함께 갑시다.
1 : 정말 고맙습니다.

1 :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 다시 한번 가보고싶습니다.
2 : 이번주에 꼭 가보도록 합시다.

1 : 저는 최근에 나온 영화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2 : 인차 보도록 해드리겠어요.

1 : 묘향산과 금강산에 가봤으면 합니다.
2 : 묘향산에는 올해 가을에 가고 금강산에는 다음해 여름에 가보도록 합시다.

1 : 저는 유명한 평양국수를 먹어보고싶습니다.
2 : 그야 힘들겠습니까. 당장 오늘저녁에 옥류관에 갑시다.

1 : 동무하구 탁구를 한번 쳐봤으면 하는데 반대가 없겠는지요?
2 : 잘 치지는 못하지만 함께 칩시다.

1 : 만수대예술극장에서 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2 : 그렇게 합시다. 토요일 저녁에 가보는것이 어떻습니까?

1 : 미안하지만 《현대조선말사전》을 한권 구해줄수 없겠습니까?
2 : 출판된지가 퍼그나 오래돼서 좀 힘들것 같아요. 그러나 책방에 부탁해서 꼭 구해드리도록 하겠어요.

1 : 동무들한테 줄 선물을 좀 준비해야겠는데 오후에 상점에 좀 같이 가줄수 없겠습니까?
2 : 그야 못해드리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1 : 우리 대사관에 전화를 좀 걸게 해주십시오.
2 : 어서 거십시오.

1 : 다음해에 우리 나라를 꼭 방문해주십시오.
2 :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방문할 계획이였습니다.

1 : 학생때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좀 만났으면 합니다.
2 : 그렇게 하십시오. 제자가 스승을 잊지 않고 찾는것은 좋은 일이지요.

1 백두산에 한번만 가보면 원이 없겠습니다.

2 : 그러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원을 풀어드려야지요.

1 : 유명한 개성인삼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요.
2 : 다음달에 개성에 갈 때 사도록 합시다.

△ 단어

청원	가을	출판
내다	다음해	퍼그나
시간을 내다	여름	오래되다
필요하다	당장	책방
민요	옥류관	선물
꼭	반대	대사관
5월	만수대	방문
5월1일경기장	예술	계획
축구경기	극장	가르치다
표	만수대예술극장	제자
구하다	음악	스승
요람	무용	백두산
이번주	공연	원
꼭	음악무용종합공연	원이 없다
최근	토요일	원을 풀다
영화	권(한~)	인삼
금강산	지(출판된~오래다)	다음달

△ 문법

—를/을 위하여 (목적)
 ○ 조국을 위하여 배웁니다.
—ㄹ/을수 없다 (불가능)
 ○ 동생은 혼자서 갈수 없습니다.
—면 하다 (희망)
 ○ 조선노래를 배웠으면 합니다.
—면 좋겠다 (희망)
 ○ 금강산에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요/어요/여요 (종결토; 알림, 높임)
 ○ 제기 도와드리겠어요.
—야/이야 (도움토; 강조)
 ○ 이거야 힘들지 않지요.
—하고 (상태)
 ○ 동생하고 갑니다.

제5과. 금 지

1 : 저의 표는 사지 마십시오.
2 : 무슨 일이 있습니까?
1 : 바쁜 일이 있어서 경기장에 가지 못할것 같습니다.
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 : 편지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2 : 그건 어째서요?
1 : 다음주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2 : 아, 그렇군요, 우리가 편지보다 먼저 갈수 있겠군요.

1 : 그 방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2 : 왜 그럽니까?
1 : 지금 회의중입니다.
2 : 난 그런것도 모르고…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1 : 그 동무를 놀래우면 안됩니다.
2 :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 그는 신경이 몹시 예민하답니다.
2 : 아, 그렇습니까?

1 : 미안하지만 문을 열지 마십시오.
2 : 예, 그렇게 합시다.

1 : 불을 켜지 마십시오.
2 : 알았습니다.

1 : 여기서 떠들면 안됩니다.
2 : 미안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

1 : 아직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2 : 알겠습니다.

1 :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2 : 아, 그렇습니까, 전 미처 몰랐댔습니다.

1 : 깊이 잠들었는데 깨우지 마시오.
2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2 : 미안합니다.

1 :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이 다 제대로 될겁니다.
2 :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놓겠습니다.
1 : 그 동무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 안됩니다.
2 : 그렇습니까?

1 : 기다리지 마십시오.
2 : 그럼 먼저 떠나겠습니다.

1 : 먼저 떠나지 마시오.
2 : 예, 기다렸다 같이 가겠습니다.

1 : 선생님의 승인도 받지 않고 가면 되겠습니까?
2 :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중입니다.

1 : 동문 혈압도 높은데 술이나 맥주를 많이 마시면 나쁩니다.
2 : 충고를 달게 접수합니다.

1 :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2 : 명심하겠습니다.

1 :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2 : 알았습니다.

1 :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은 휴식할수 없습니다.
2 : 옳습니다.

1 : 동무는 환자이기때문에 힘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2 : 념려해주어서 고맙습니다.

1 : 환자를 흥분시키지 마십시오.
2 : 알겠습니다.

1 : 건늠길표식이 없는데로 건너가서는 안됩니다.
2 : 알겠습니다. 모르고 그랬는데 한번만 용서해주십시오.

1 : 경기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2 : 명심하고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1 : 밤에 너무 늦게 자는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2 : 알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는 습관을 붙이겠습니다.

1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롱담을 함부로 하면 실례가 됩니다.
2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나친 롱담을 삼가하겠습니다.

△ 단어

금지	담배	념려해주다
놀래우다	제대로	건늠길표식
신경	마음을 놓다	용서
몹시	소식	요구대로
예민하다	승인	일찌기
문	혈압	일어나다
불	술	습관
켜다	맥주	붙다
불을 켜다	마시다	습관을 붙이다
떠들다	충고	사람
조용하다	달다	롱담
미처	접수	지나치다
깊이	깊다	삼가하다
잠들다	위험	
깨우다	명심하다	

△ 문법

—아서/어서/여서는 안되다 (금지)
ㅇ 담배를 피워서는 안됩니다.

제6과. 축하, 축원

1 : 새해를 축하합니다.
②: 새해를 축하합니다.
1 : 새해에도 학습에서 커다란 성과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②: 감사합니다.

①: 명절을 축하합니다.
2 : 고맙습니다.

1 :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축하합니다.
②: 국경절을 축하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①: 생일을 축하합니다.
2 : 고맙습니다.

1 : 조선인민군창건일을 축하합니다.

②: 고맙습니다.

①: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2 : 감사합니다.

1 : 국경절에 즈음하여 우리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는바입니다.
②: 우리의 국경절을 열렬히 축하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①: 경기에서 영예의 1등을 쟁취한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2 :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년간계획을 한달 앞당겨 수행한 동무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②: 감사합니다.

①: 높은 국가표창을 받은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2 : 고맙습니다.

1 : 졸업론문변론을 성과적으로 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②: 언제나 관심해주어서 감사합니다.

①: 올해 또다시 풍작을 마련한 농장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2 : 고맙습니다.

1 :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②: 감사합니다.

①: 명절을 가족, 친척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2 : 감사합니다. 당신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1 : 대학입학을 축하합니다.
②: 감사합니다.

①: 졸업을 축하합니다.
2 : 감사합니다.

1 : 할아버지,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②: 고맙네.

①: 이번 졸업시험에서 영예의 최우등을 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2 : 감사합니다.

1 : 인류공동의 경사의 날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2 : 훌륭한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1 :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2월의 명절을 가장 열렬히 축하합니다.
2 : 이처럼 열렬히 축하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1 : 영예로운 조선인민군 입대를 축하합니다.
2 : 감사합니다.

△ 단어

축하	영예	즐겁다
축원	등(1~)	입학
새해	쟁취	복
커다랗다	년간	인류
명절	수행	공동
공화국	열렬하다	경사
공화국창건기념일	국가	민족
기념	표창	최대
창건	론문	가장
국경절	변론	영예롭다
생일	관심하다	입대
인민군	또다시	축하하다
창건일	공작	당
부녀절	마련	조국
3.8국제부녀절	농장원	몸
충심	하루속히	한몸
열렬히	친척	싸우다

△ 문법

—에 즈음하여 (계기)
　○ 인민군절에 즈음하여 축하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7 과. 나이

1 : 동무는 지금 몇살입니까?
2 : 스물세살입니다.
1 : 그러면 주체64년에 출생했습니까?
2 : 그렇습니다.
1 : 그럼 나와 동갑이군요. 생일은 언제입니까?
2 : 4월 28일입니다.
1 : 좋은 계절이군요.
2 : 그렇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태여났지요.
1 : 참 생일이 좋습니다. 그때면 만경대와 모란봉은 말할것도 없고 온 나라의 모든 산과 들이 진달래, 개나리꽃, 살구꽃, 복숭아꽃, 사과꽃, 배꽃으로 뒤덮입니다.
2 : 아 그러니 평양에 와서 꽃속에서 생일을 쇠게 됐군요.
1 : 동무 생일날 우리 모란봉에 가서 꽃밭속에서 재미나게 보냅시다.
2 :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무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1 : 저의 생일은 9월 2일입니다.
2 : 그러니 동무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철이군요.
1 : 그렇지요.
2 : 부모님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였습니까?
1 : 아버지는 쉰여섯살이고 어머니는 쉰세살입니다.
2 :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십니까?
1 : 물론이지요.
2 : 나이가 어떻게들 됐습니까?
1 : 할아버지는 올해에 일흔아홉살이고 할머니는 일흔여덟살입니다.
2 : 나이들이 많으시군요.
1 : 예, 그렇지만 지금도 정정들 하십니다. 저에게는 증조할머니도 계시는데요
2 : 그렇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1 : 저의 할머니는 어제 생일 100돐상을 받았습니다.

보충

— 나이가 많습니다.
— 나이가 어립니다.
—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 나이보다 젊어보입니다.

— 나이보다 늙어보입니다.
— 오늘은 조카의 돌잔치날입니다.
— 오늘은 어머니의 환갑날입니다.
— 생일을 쇱니다.
— 생일상을 차립니다.
— 조카는 난지 10달이 됩니다.
— 형님은 스물다섯살에 학사가 되였습니다.
— 맏형은 서른살에 박사가 되였습니다.

△ 단어

그러면	배꽃	돐
출생	뒤덮다	상
동갑	그러니	어리다
계절	쇠다	나이를 먹다
만물	생일을 쇠다	젊어보이다
소생	생일날	늙어보이다
봄	밭	조카
태여나다	재미있다	돌잔치
말할것 없다	오곡	생일상
돌	백과	차리다
진달레	오곡백과	낳다
개나리꽃	무르익다	학사
살구꽃	철	맏형
복숭아꽃	부모님	박사
사과꽃	증조할머님	

제 8 과. 날자

1 : 미안하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2 : 9월 4일입니다.
1 : 래일은 교육절이군요.
2 : 예, 교육절입니다.
1 : 그런데 왜 9월 5일을 교육절로 정했습니까?
2 :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9월 5일에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였는데 바로 뜻깊은 이 날을 교육절로 해마다 기념하고있습니다.
1 : 며칠후엔 국경절을 기념하게 되겠군요.

2 : 그렇습니다. 9월 9일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날입니다.
1 : 김일성종합대학은 언제 창립되였습니까?
2 : 주체 35(1946)년 10월 1일에 창립되였습니다.
1 : 그러니까 올해 창립 ○○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2 : 예, ○○돐을 맞이합니다.
1 : 정주년이니까 뜻깊게 기념하겠지요?
2 : 예,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이 진행될겁니다.

1 : 동무는 언제 평양에 왔습니까?
2 : 8월말에 왔습니다.
1 : 어느날 평양에 도착했습니까?
2 : 26일에 도착했습니다.
1 : 어느날 조국에서 떠났습니까?
2 : 25일에 떠났습니다.
1 : 그럼 평양에 오는데 하루도 채 안걸린단말입니까?
2 : 비행기로 왔으니까요.
1 : 기차로는 조선에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2 : 한주일 잘 걸립니다.
1 : 평양에 온지 얼마나 되였습니까?
2 :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1 : 동무는 조선에 얼마동안 있게 됩니까?
2 : 열달동안 있게 됩니다.

1 : 언제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됩니까?
2 : 7월중순부터 시작됩니다.
1 : 여름방학은 며칠동안입니까?
2 : 넉주니까 거의 한달동안입니다.
1 : 어느날부터 시험이 시작됩니까?
2 : 이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
1 : 며칠동안 칩니까?
2 : 아마 두주일동안 칠겁니다.
1 : 동무는 언제 고향으로 떠납니까?
2 : 모레쯤 떠나볼가 합니다.
1 : 영남동무는 언제 대학으로 돌아옵니까?
2 : 늦어도 글피쯤은 올것 같습니다.

△ 단어

날자	뜻	채
교육절	뜻깊다	비행기
정하다	민주주의	주일
고전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순
로작	창립	거의
사회주의	정주년	모레
교육	다채롭다	글피
테제	진행	
발표	어느날	

△ 문법

—니까요 (종결토 ; 니까+요)

ㅇ 우린 천천히 걸어왔으니까요.

—ㄹ/을가 하다 (망설임)

ㅇ 이젠 떠날가 합니다.

—에 관하다 (대상)

ㅇ 교육문제에 관한 글을 씁니다.

제 9 과. 요일

1 :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2 : 수요일입니다.
1 : 오는 2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2 : 토요일입니다.
1 : 한주일에 강의를 몇강의나 받습니까?
2 : 열여섯강의 받습니다.
1 : 월요일에는 몇강의를 받습니까?
2 : 세강의를 받습니다.
1 : 토요일에도 세강의를 받습니까?
2 : 아닙니다. 토요일에는 두강의만 받습니다.
1 : 화요일에는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2 : 《조선문화어강독》, 《조선문화어문법》 그리고 《조선력사》 강의가 있습니다.
1 : 《조선말회화》 강의는 어느 요일에 합니까?
2 :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합니다.

1 : 그러면 하루 건너 한강의씩 한주에 세강의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2 : 다음 학기부턴 네강의를 받습니다.
1 : 주당 네강의면 충분하지요?
2 : 예, 충분합니다.
1 : 견학은 보통 한주에 몇번 합니까?
2 : 보통 한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에 합니다.
1 : 그럼 금요일에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2 : 오전에는 강의를 받고 오후에 견학을 합니다.
1 : 토요일 오후에는 뭘 합니까?
2 : 점심을 먹은 다음 기숙사 대청소를 하고 영화도 보군합니다.
1 : 일요일에는 어떻게 지냅니까?
2 : 오전엔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보낼 편지를 쓰고 오후에는 텔레비존도 보고 체육도 합니다.
1 : 한주일에 편지를 몇번 받습니까?
2 : 보통 한번 받습니다.
1 : 주로 어느 요일에 받습니까?
2 : 월요일에 받습니다.
1 : 그날 비행기가 옵니까?
2 : 예, 월요일에 비행기가 옵니다.
1 : 생활이 심심치 않습니까?
2 : 심심하다니요. 우리 생활은 늘 흥겹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 : 생활이 흥겨우면 시간이 빨리 가는것처럼 느껴지지요.
2 : 그런것 같습니다. 평양에 온것이 어제같은데 벌써 석달이 지났습니다.
1 : 국제렬차는 평양에서 어느 요일에 떠납니까?
2 : 수요일과 토요일에 떠납니다.
1 : 국제렬차가 어느 요일에 평양에 옵니까?
2 : 화요일과 금요일에 옵니다.
1 : 그러니까 하루 묵어서 가는군요.
2 : 예, 그렇지요.
1 : 비행기는 어느 요일에 떠납니까?
2 : 화요일과 목요일에 떠납니다.
1 : 오는 비행기는 어느 요일에 있습니까?
2 : 월요일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 단어

수요일	금요일	심심하다
강독	씩	느끼다
문화어	적다	지다
조선문화어	학기	느껴지다
문법	당(주~)	렬차
조선력사	충분하다	국제렬차
회화	보통	목요일
조선말회화	대청소	

△ 문법

—군하다 (반복)

ㅇ 그는 일요일마다 할머니네 집에 가군합니다.

—다니요 (종결토; 물음, 놀임)

ㅇ 김동무가 오다니요?

제10과. 시간

1: 미안하지만 지금 몇시입니까?
2: 10시 25분입니다.
1: 동무는 보통 몇시에 일어납니까?
2: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1: 몇시에 아침을 먹습니까?
2: 7시부터 7시 반사이에 먹습니다.
1: 아침식사시간이 좀 늦지 않습니까?
2: 일없습니다. 첫 강의가 8시에 시작되기때문에 학교에 가는 길에 먹고갑니다.
1: 기숙사에서 대학까지 걸어서 몇분이나 걸립니까?
2: 천천히 걸어서 한 10분 걸립니다.
1: 일요일에도 아침식사시간이 같습니까?
2: 좀 다릅니다. 일요일에는 여느날보다 한 반시간쯤 늦게 합니다.
1: 몇시에 강의가 끝납니까?
2: 첫 강의는 9시 반에, 둘째 강의는 11시 10분에, 셋째 강의는 1시에 끝납니다.
1: 휴식시간은 10분씩입니까?
2: 첫번째 휴식시간은 10분이고 두번째 휴식시간은 20분입니다.
1: 왜 그렇게 다릅니까?

2: 두번째 휴식시간에는 모두 운동장에 나가서 업간체조를 합니다. 업간체조는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1: 점심식사는 몇시에 합니까?
2: 1시 30분에 합니다.
1: 동무는 하루에 몇시간 공부합니까?
2: 보통 12시간 공부합니다. 오전에 대학에서 6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기숙사나 도서관에서 6시간 공부합니다.
1: 동무는 몇시에 잠자리에 눕습니까?
2: 특별한 일이 없으면 11시에 자리에 눕습니다.
1: 그러면 하루에 몇시간 자는것으로 됩니까?
2: 11시에 누워서 아침 5시반에 일어나니까 6시간 반동안 자는것으로 됩니다.
1: 잠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2: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잠이야 잘수록 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 공연을 몇시에 시작합니까?
2: 7시에 시작합니다.
1: 몇시까지 가야 합니까?
2: 6시 30분까지 가면 됩니다.
1: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2: 아닙니다. 극장식당에 들려서 시원한 사이다를 한잔 마시고나면 공연시간이 될겁니다.
1: 공연은 몇시간 걸립니까?
2: 2시간 좀 못걸립니다.
1: 기숙사에 몇시에 돌아올수 있습니까?
2: 9시쯤에 공연이 끝나니까 9시 10분에는 돌아옵니다.
1: 기숙사에서 몇시에 떠나기로 했습니까?
2: 6시 20분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1: 저 탁상시계는 맞습니까?
2: 예, 꼭 맞습니다.
1: 몇시에 종이 울리게 맞추어놓았습니까?
2: 6시에 맞추어놓았습니다.
1: 그럼 종이 날 때까지 숙제를 합시다.
2: 그게 좋겠습니다.

보충

— 시간이 빨리 갑니다.

— 시간이 막 안갑니다.
— 시간을 아껴 공부합니다.
—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 시간은 천금보다 귀중합니다.
— 약속한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 시간을 내다.
— 시간이 없다.
— 시간이 있다.
— 시간이 많다.
— 시간이 모자라다.
— 시간이 남다.

△ 단어

사이	정신	맞추다
아침식사	정신로동	종
첫	특별하다	시간이 가다
같다	모자라다	막
여느	그만하다	아끼다
째	늘다	천금
첫번째	사이다	귀중하다
운동장	잔	지키다
나가다	시계	철저히
업간	탁상	남다
체조	탁상시계	
업간체조	울리다	

△ 문법

— 고나다 (완료)
○숙제를 하고나서 가겠습니다.

— 기로 하다 (약속)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제11과. 계절

1: 조선에서는 계절을 어떻게 나눕니까?
2: 봄, 여름, 가을, 겨울 네계절로 나눕니다.
1: 봄은 어느 달부터 시작됩니까?
2: 3월부터 시작됩니다.
1: 봄철에는 날씨가 보통 어떻습니까?

2: 3월에는 좀 쌀쌀한데 4월에 들어서면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1: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핍니까?
2: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먼저 핍니다.
1: 대학구내에서 진달래꽃을 구경할수 있습니까?
2: 물론이지요, 4월 15일이면 룡남산일대는 진달래꽃, 개나리꽃, 살구꽃, 복숭아꽃들로 뒤덮입니다.
1: 봄에 농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2: 논밭을 갈고 모내기도 하고 씨뿌리기도 합니다.
1: 봄에 비가 자주 옵니까?
2: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옵니다.
1: 그러면 농사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2: 비가 오지 않을 땐 저수지물을 쓰면 됩니다.

1: 여름은 어느 달부터입니까?
2: 여름은 6월부터입니다.
1: 여름철 날씨는 덥지요?
2: 예, 덥습니다. 특히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는 아주 무덥습니다.
1: 여름철에 농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2: 주로 김매기를 합니다.
1: 여름에도 봄처럼 비가 적게 옵니까?
2: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때때로 장마가 지기도 합니다.
1: 평양지방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까?
2: 예, 대동강상류지대에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1: 그럼 평양시가 큰물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2: 일없습니다. 대동강에 갑문을 여러개 건설해놔서 큰물이 나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1: 가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 가을은 9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 가을날씨는 어떻습니까?
2: 가을에는 날씨가 비교적 서늘합니다.
1: 가을에 경치가 어떻습니까?
2: 우리 나라 가을풍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협동벌에는 황금물결이 설레이고 산에는 단풍이 들어 울긋불긋하지요. 하늘은 더더욱 높아보이고 강물은 수정처럼 맑아집니다.

1 : 서리는 언제 내립니까?
2 : 첫 서리는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내립니다.

1 : 겨울은 언제부터입니까?
2 : 겨울은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1 : 겨울은 춥겠지요?
2 : 예, 찬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1 :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립니까?
2 : 북쪽에는 많이 오지만 평양지방에는 그리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1 : 겨울에 대동강과 보통강이 업니까?
2 : 예, 제일 추운 대소한추위때는 업니다.
1 : 그러면 대동강에서 스케트를 탈수 있겠군요.
2 : 스케트는 주로 보통강에서 탑니다. 대동강은 물이 많아서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습니다.

△ 단어

계절	씨뿌리기	큰물	맑아지다
나누다	일반적	피해	서리
철	농사	입다	12월
3월	지장	피해를 입다	초(1월～)
봄철	저수지	건설	춥다
쌀쌀하다	6월	9월	차다
4월	여름철	11월	찬바람
들어서다	덥다	비교적	눈
점점	특히	서늘하다	북쪽
따뜻하다	7월	풍경	그리
구내	8월	벌	보통강
구경	무덥다	물결	얼다
룡남산	김	설레이다	대소한
일대	매다	단풍	추위
농촌	김매기	단풍이 들다	대소한추위
논	때때로	울긋불긋하다	스케트
갈다	장마	더더욱	얼음
모	장마가 지다	높아보이다	두껍다
씨	상류	강물	
뿌리다	지대	수정	

△ 문법
—아/어—여놓다 (완료)
ㅇ 식사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제12과. 날씨

1 : 오늘 날씨가 어떨것 같습니까?
2 : 좋을것 같지 않습니다.
1 : 어제밤에도 비가 왔지요?
2 : 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1 : 밤에 오던 비가 언제 멎었습니까?
2 : 새벽에 멎었습니다.
1 : 오늘도 비가 올것 같으니 비옷을 가지고 떠납시다.
2 : 그렇게 합시다.
1 : 갑자기 비구름이 하늘을 덮는걸 보니 소나기가 올것 같습니다.
2 : 비옷을 가지고 가면 일없을겁니다.
1 : 그래도 새로 나온 잡지나 보면서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에 가는것이 어떻습니까?
2 : 참, 그게 좋겠습니다.

1 : 지금 바깥 날씨가 어떻습니까?
2 : 눈보라가 일고 몹씨 춥습니다.
1 : 오늘 겨울방학이 시작되여 첫날인데 유감스럽군요.
2 : 왜 그럽니까?
1 : 전 오늘 동무와 함께 보통강에 스케트타러 가려고 했댔습니다.
2 : 그렇습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1 : 그런데 날씨가 너무 사나와서…
2 : 모르는 소리입니다. 날씨가 추워야 스케트타는 맛이 나지요.
1 : 오늘 기온이 몇도나 될것 같습니까?
2 : 령하 15도는 될것 같습니다.
1 : 겨울에 평양지방에서 제일 낮은 온도는 몇도나 됩니까?
2 : 제일 추운 대소한때에는 령하 25도아래까지 내려갑니다.

보충
— 보슬비가 내립니다.
—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 무더기비가 내립니다.
— 우박이 떨어집니다.
— 하늘에 쌍무지개가 섰습니다.
— 번개가 치고 우뢰가 웁니다.
— 찬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붑니다.
— 래일은 개일것 같습니다.
— 래일은 흐릴것 같습니다.
— 선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 맵짠 바람이 붑니다.
— 함박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 싸락눈이 내립니다.
— 눈보라가 칩니다.
—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 마당에서 눈을 칩니다.

△ 단어

멎다	맛	찬비
비옷	맛이 나다	개이다
갑자기	평하	선기
구름	온도	맵다
비구름	내려가다	짜다
소나기	보슬비	맵짜다
그래도	쏟다	펑펑
바깥	무더기비	함박눈
눈보라	우박	싸락눈
일다	떨어지다	풀리다
첫날	무지개	날씨가 풀리다
유감스럽다	쌍무지개	마당
스케트	번개가 치다	치다
사납다	우뢰	
소리	울다	

△ 문법

—던 (규정토; 과거지속)

○ 밤에는 흐렸던 날씨가 아침에는 맑게 개였습니다.

제13과. 텔레비죤시청

1: 오늘 텔레비죤순서를 압니까?
2: 예, 압니다.
1: 어떤 프로들이 있습니까?
2: 보도, 기록영화, 근로자들의 노래경연, 예술영화, 체육소식, 노래와 춤을 비롯해서 다채롭습니다.
1: 보도는 몇시에 합니까?
2: 보도는 두번 하는데 5시와 8시에 합니다.
1: 예술영화는 뭘 합니까?
2: 《민족과 운명》 40부를 합니다.
1: 그럼 오늘은 8시부터 텔레비죤을 봅시다.
2: 그렇게 합시다.

1: 자, 8시가 다 되였습니다. 텔레비죤을 켜야겠군요.
2: 어서 켭시다.
1: 보도를 시작합니다. 저 남자방송원은 인민방송원이라지요?
2: 예, 저 남자방송원은 인민방송원이고 녀자방송원은 공훈방송원입니다.
1: 난 저 방송원들의 화술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2: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듣고 다 리해됩니까?
1: 처음엔 리해하기 어렵더니 지금은 다 리해됩니다.
2: 화면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1: 예, 좀 밝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2: 소리도 좀 높이는게 어떻습니까?
1: 예, 좀 높입시다.
2: 색도 좀 조절합시다.
1: 진하게 하랍니까, 연하게 하랍니까?
2: 좀 연하게 합시다.
1: 됐습니까?
2: 예, 그런데 화면에 허상이 생깁니다.
1: 안테나를 조절합시다.
2: 좋습니다. 이젠 누구도 더 손대지 맙시다.
1: 그럼 조용히 영화를 봅시다.

1: 오늘저녁 텔레비죤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2 : 앞으로도 자주 함께 봅시다.
1 : 래일 방송순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2 : 그건 래일 시작할 때 보아도 됩니다.
1 : 래일 《평양신문》에도 나오지요?
2 : 옳습니다. 《평양신문》에 순서를 소개합니다.
1 : 그럼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쏘이고 자는게 어떻습니까?
2 : 그게 좋겠습니다.
1 : 나는 래일 오후에 오늘 본 영화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 : 좋습니다. 말할 때 틀리는것이 있으면 내가 바로잡아주겠습니다.
1 : 고맙습니다.

△ 단어

시청	운명	진하다
텔레비죤시청	부(40~)	연하다
순서	자(감)	생기다
프로	텔레비죤을 켜다	안테나
보도	남자방송원	손
기록	인민방송원	대다
기록영화	녀자방송원	손대다
근로자	공훈방송원	조용히
경연	노력	평양신문
노래경연	어렵다	밖
예술영화	어둡다	쏘이다
체육소식	높이다	틀리다
춤	조절	바로잡다

△ 문법

—더니 (접속토; 대립)
ㅇ 조선말이 처음엔 힘들더니 지금은 재미있습니다.
—라지요? (라고 하다+지요)
ㅇ 저 동무 공훈방송원이라지요.

제14과. 방문

1 : 들어갈만합니까?
2 : 들어오십시오.
1 : 미안하지만 김철수동무의 방이 맞습니까?
2 : 예, 맞습니다.

1 : 저는 철수동무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합니다. 철수동무를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2 : 예, 여기 좀 앉으십시오.
1 : 고맙습니다. 그런데 철수동무가 어디에 갔습니까?
2 : 책방에 갔습니다.
1 : 간지 오랩니까?
2 : 한시간전에 갔습니다.
1 : 몇시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까?
2 : 인차 오겠다고 했습니다.
1 : 그럼 여기서 좀 기다려도 실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2 : 실례는 무슨 실례겠습니까?
1 : 고맙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를 끼쳐서 안됐습니다.
2 : 일없습니다. 마침 저기 철수동무가 옵니다.
1 : 그렇습니까? 그럼 휴계실에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2 : 방에서 만나시지요.
1 :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2 : 그럼 좋도록 하십시오.
1 :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1 : 들어가도 좋습니까?
2 :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1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 안녕하십니까? 그래 어떻게 왔습니까?
1 : 며칠전에 묘향산을 견학하고 기행문을 하나 썼습니다.
2 : 참 잘했습니다.
1 : 선생님, 바쁘시지만 좀 봐주실수 없겠습니까?
2 : 어디 봅시다.
1 : 잘된것 같지 않습니다.
2 : 일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글을 써보는것은 조선말학습에 참 좋습니다.
1 : 선생님, 요새 바쁘시겠는데 안됐습니다.
2 : 안될게 있습니까? 이런 학습문제라면 아무때든지 오십시오.
1 :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 예, 두고 가시오. 래일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1 :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2 : 안녕히 가시오. 래일 다시 만납시다.

△ 단어

몇시	요새
방해를 끼치다	아무때
기행	의견
기행문	두다
자꾸	

△ 문법

—라면 (접속토 ; 라+면)

ㅇ 김동무가 최우등생이라면 참 좋습니다.

—든지 (접속토 ; 선택)

ㅇ 김동무가 오든지 리동무가 오든지 한명만 오십시오.

제 1 5 과. 수업시간

1 : 안녕하십니까?

2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 반장동무, 결석생이 없습니까?

2 : 예, 다 왔습니다.

1 : 좋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합시다. 먼저 숙제를 검열하겠습니다. ㅇㅇ동무, 숙제가 뭡니까?

2 : 예, 문장짓기와 본문내용말하기입니다.

1 : 숙제를 다 해왔습니까?

2 : 예, 다 해왔습니다.

1 : 문장짓기숙제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 학습장을 래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배운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것만 검열하겠습니다. 어느 동무가 먼저 말하겠습니까?

2 :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1 : 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숙제검열은 이만하겠습니다. 모두 숙제를 잘했습니다.

새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56페지를 펼치십시오.

제가 먼저 새 본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읽은데서 물어볼것이 없습니까?

2 : 선생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 : 어서 말씀하십시오.

2 : 《천리마동상이 보입니다》에서 《천리마》를 어떻게 발음해야 합니까?

1 : 《천리마》는 《천리마》나 《천니마》로 발음하지 않고 《철리마》로 발음해야 합니다.

2 : 잘 알았습니다.

1 : 이번에는 따라읽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동무들은 따라 읽으십시오.

2 : 예.

1 : 이번에는 ㅇㅇ동무가 본문을 읽으십시오. 다른 동무들은 잘 들으면서 발음과 억양이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ㅇㅇ동무가 읽은데서 틀린것이 없습니까?

2 :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다른건 다 맞는데 《물결을 헤치고》에서 《결》을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1 : 예,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물결》에서 《ㄹ》다음에 오는 순한소리 《ㄱ》는 된소리 《ㄲ》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럼 읽기는 그만하고 새 단어와 표현, 문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운데서 모를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2 : 선생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 : 어서 물어보십시오.

2 : 격토 《에》와 《에서》의 차이를 다시 설명해주십시오.

1 : 《에》와 《에서》는 여러가지 뜻에서 차이가 나는데 장소를 나타내는데서의 차이만 설명하겠습니다. 《에》는 존재의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는 행동이 진행되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있습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대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합니다.》라고 해야지 《학생들이 교실에 공부합니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2 : 잘 알았습니다.

1 : 또 물어볼것이 있습니까?

2 : 없습니다.

1 : 그럼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첫째, 오늘 배운 본문을 자기 말로 말할수 있도록 준비해오시오.

둘째, 오늘 배운 본문에서 부사를 찾고 짧은 문장을 지어오시오.

셋째, 《하루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오시오.

이상입니다.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2 : 좀 많습니다. 그러나 숙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것입니다.

1 : 옳습니다. 숙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말수준을 꾸준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2 :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보충

— 래일 시간표를 좀 알려주십시오.
— 오후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 받아쓰기를 하겠습니다.
— 학습장에 쓰십시오.
— 칠판에다 쓰십시오.
— 듣기련습을 하겠습니다.
— 두 사람씩 회화를 하겠습니다.
—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 속으로 읽으십시오.
— 설명을 들으십시오.
— 칠판을 보십시오.
— 걸그림을 보십시오.
— 단어로 짧은 문장을 지으십시오.
— 점수를 매깁니다.
— 칠판을 깨끗이 지웁니다.

△ 단어

수업	천리마	공간
수업시간	천리마동상	그러므로
반장	발음	내주다
결석	따라읽다	첫째
검열	따라읽기	부사
문장	억양	제목
짓다	정확하다	이상
문장짓다	된소리	과정
말하기	순한소리	수준
돌려드리다	그만하다	꾸준히
이만하다	표현	시간표
새	토	받아쓰기
페지	격토	칠판
펼치다	장소	걸그림
데(읽는~서)	나타내다	점수를 매기다
한가지	존재	깨끗이
동상	위치	지우다

△ 문법

—라는／이라는 (인용＋한정)

ㅇ 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세요.

제１６과. 직업

1 : 동무는 어디에서 일합니까?
2 : 제철소에서 일합니다.
1 : 거기서 무슨 일을 봅니까?
2 : 저는 쇠를 녹이는 용해공입니다.
1 : 용해공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2 : 물론 지난날에는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1 : 그럼 지금은 어렵지 않단말입니까?
2 : 예, 지금은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 원격조종화되여 힘든줄 모릅니다.

1 : 동무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2 : 협동농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1 : 그러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협동농장원이군요.
2 : 옳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지고있습니다.
1 : 올해에 농사가 어떻습니까?
2 : 아주 잘됐습니다.
1 : 올해농사가 잘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2 :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농사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은데 있습니다.
1 : 농사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2 : 지난날에 그처럼 힘들고 고되던 농사일이 오늘은 기계화, 화학화되여 홍겨운 일로 되였습니다.

1 : 미안하지만 동무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2 : 저는 평양제１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1 : 그러니 인민의 봉사자이군요.
2 : 예, 우리 나라에서 판매원은 그저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사람이지요.
1 : 정말 맡은 책임이 중요하군요.
2 : 우리 판매원들은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구를 미리 다 알아서 해결해주려고 애쓰고있습니다.
1 : 저는 동무가 인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봉사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2 :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습니다.

1 : 동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2 : 저는 탄부입니다.
1 : 몹시 힘드시겠습니다.
2 : 힘들다니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답니다. 탄을 캐는 일이 다 기계화되여 하나도 힘든것이 없습니다.
1 : 아 그렇습니까?
2 : 우리 당에서는 탄부들을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사랑한답니다.
1 : 정말 긍지높은 직업입니다.

1 : 동무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2 : 저는 의사입니다.
1 : 아, 그러니까 인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책임적인 일을 맡아보십니다.
2 : 예, 책임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사들이 환자의 병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할 때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늘 가르치시였답니다.
1 : 정말 귀중한 가르치심입니다.
2 : 그래서 우리 의료일군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하고있답니다.

△ 단어

직업	농민	다하다	긍지
제철소	요인	주민	긍지높다
쇠	몸소	미리	생명
녹이다	창조	애쓰다	맡아보다
용해공	농법	사랑	참으로
지난날	주체농법	존경	무겁다
공정	과학적	일군	지극하다
생산	농사일	봉사일군	돌
자동화	고되다	기대	정성
원격	기계화	어긋나다	세상
조종	백화점	탄부	고치다
원격조종화	평양제1백화점	옛날	병
쌀	봉사자	탄	가르치심
독	상품	캐다	의료
쌀독	팔다	금	의료일군
책임	말다	싸래기	건강증진
지다	참되다	금싸래기	위하다
책임지다			

△ 문법
—단말이다 (강조)
○ 영수가 왔단말입니까?

제17과. 가정

1 : 김동무의 가족사진이 아닙니까?
2 : 예, 저의 가족사진입니다.
1 : 좀 봅시다. 참 행복한 가정이군요. 식구가 넷입니까?
2 : 예. 저까지 넷입니다.
1 :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녀동생이 있군요.
2 : 그렇습니다.
1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안계십니까?
2 : 왜요? 아직 정정하신데요.
1 : 그럼 조부모님들이 따로 계시는 모양이군요.
2 : 할아버지, 할머니는 큰아버지가 모시고있습니다.
1 : 아버지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보십니까?
2 :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 기사로 일합니다.
1 : 그 공장에서 일하는지 오래 되였습니까?
2 : 예, 이젠 20년이 넘습니다.
1 :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2 : 평양산원에서 의사로 일하십니다.
1 : 부모님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맡아보십니다.
2 : 예, 모두 우리 당의 높은 신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지요.
1 : 동무가 맏이입니까?
2 : 아닙니다. 제 손우로 형님이 한명 있습니다.
1 : 형님은 세간을 났습니까?
2 : 예, 결혼을 하고 따로 삽니다.
1 : 조카가 있습니까?
2 : 두살나는 녀조카가 있습니다.
1 : 녀동생은 몇살입니까?
2 : 17살입니다.
1 : 그럼 고등중학교 학생이겠군요.
2 : 예, 지금 졸업반입니다.
1 : 언제 졸업하게 됩니까?
2 : 올해 3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1 : 녀동생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2 : 그는 방직공장에서 일하면서 공장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1 : 방직공장안에 대학이 있습니까?
2 : 예, 우리 나라에선 큰 공장마다 대학과 - 전문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1 : 아, 그게 바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라는거지요?
2 :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자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다같이 발전시켜야 하지요.
1 : 누이동생의 결심이 참 훌륭합니다.
2 : 그래서 나도 누이동생의 결심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1 : 부모님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2 : 반대할리가 있습니까? 모두 잘 생각했다고 칭찬하지요.
1 : 듣고보니 동무네 가정은 참 훌륭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더 큰 행복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2 : 고맙습니다.

1 : 동무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2 : 광복거리에 있습니다.
1 : 몇층짜리 아빠트에 있습니까?
2 : 25층짜리 아빠트에 있습니다.
1 : 동무의 집은 몇층에 있습니까?
2 : 12층에 있습니다.
1 : 높은데 있군요.
2 : 예, 좀 높습니다. 그러나 승강기가 있어서 생활에서는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1 :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 : 120평방메터입니다.
1 : 방은 몇칸입니까?
2 : 네칸입니다.
1 :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2 : 다섯입니다.
1 : 그러면 주택조건이 아주 훌륭하군요.
2 : 예, 아주 괜찮습니다.
1 : 방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2 : 한칸은 부모님들이 쓰고 그 다음 제가 서재겸 한칸을 쓰고 또 누이동생이 한칸 씁니다. 그리고 한칸은 손님맞이방으로 꾸렸습니다.

1 : 가구들은 어떻게 놓여있습니까?
2 : 매 방에 옷장, 이불장, 책상, 의자, 침대가 있고 손님맞이방에는 텔레비존, 록화기, 록음기와 안락의자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 텔레비존도 보고 피아노도 치며 손님도 맞이합니다.
1 : 랭동기는 어디에 놓았습니까?
2 : 랭동기는 부엌에 놓았습니다.
1 : 난방시설은 어떻게 되여있습니까?
2 : 매 방과 부엌에 중앙난방이 들어와있습니다.
1 : 집이 정말 좋군요.
2 : 이전 모두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편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의 결과입니다.
1 :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 : 언제 한번 저의 집에 놀러오십시오.
1 : 감사합니다. 시험이나 끝내고 짬을 내서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 단어

가정	녀조카	누이동생	꾸리다
사진	졸업반	결심	이불장
가족사진	방직	적극	의자
시키다	방직공장	지지	록화기
조부모	공장대학	리(반대할~)	록음기
큰아버지	안	칭찬	안락의자
모시다	전문	짜리(10층~)	랭동기
전기	전문학교	아빠트	부엌
기관차	체계	승강기	난방
김종태전기기관차	교육체계	아무렇다	시설
넘다	위대하다	면적	중앙
산원	밝히다	평방	중앙난방
평양산원	인테리	칸	고스란히
신입	인테리화	주택	경애하다
맏이	실현	사용	장군
손우	학업	서재	은덕
세간	다같이	겸	결과
세간을 나다	발전	맞이	놀러오다
결혼	누이	손님맞이방	짬을 내다

△ 문법

—고보니 (완료)

○ 듣고보니 김동무의 말이 옳습니다.

제18과. 기숙사생활

1 : 동무는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2 : 전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1 : 기숙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2 : 대학옆에 있습니다.
1 : 그러면 학교에 다니기 편리하겠군요.
2 : 예, 편리합니다.
1 : 기숙사는 몇층짜리 건물입니까?
2 : 5층짜리 건물입니다.
1 : 동무의 호실은 몇층에 있습니까?
2 : 3층에 있습니다.
1 : 3층 몇호실입니까?
2 : 16호실입니다.
1 : 한 호실에 몇명이 삽니까?
2 : 두명씩 있습니다.
1 : 동무는 누구와 같이 생활합니까?
2 : 력사학부에서 공부하는 김철수동무와 같이 생활합니다.
1 : 철수동무와 같이 삽니까? 그는 제가 잘 아는 동무입니다.
2 : 그렇습니까?
1 : 그가 탁구를 잘 치지요?
2 : 예, 잘 칩니다. 우리 기숙사에서 아직 그를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1 : 방안에는 어떤 비품들이 있습니까?
2 : 책상, 걸상, 책장, 옷장, 침대를 비롯하여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것들이 다 있습니다.
1 : 동무는 몇시에 일어납니까?
2 : 6시에 일어납니다.
1 : 철수동무도 그때 일어납니까?
2 : 예,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나 절 깨워주지요.
1 :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2 : 5분정도 아침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호실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1 : 아침에는 주로 무슨 공부를 합니까?
2 : 주로 본문읽기를 합니다.
1 : 식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2 : 기숙사식당에서 합니다.
1 : 식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2 : 기숙사 맨 아래층에 있습니다.
1 : 식당이 기숙사안에 있어서 편리하겠습니다.
2 : 예, 편리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침은 학교에 가는 길에 먹고 점심은 돌아오는 길에 먹으니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1 : 오전에는 매일 강의가 있겠지요?
2 : 일요일을 내놓고는 매일 강의가 있습니다.
1 : 오후에는 뭘 합니까?
2 :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니다.
1 :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갑니까?
2 : 물론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기숙사마당이나 대학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극장이나 영화관에도 갑니다.
1 : 밤에는 뭘 합니까?
2 : 텔레비죤을 봅니다. 텔레비죤시청은 듣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1 : 기숙사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2 : 아무런 불편도 없습니다. 관리원아주머니들과 식당아주머니들이 잘 돌봐주어서 제집에서 사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어머니에게 행복한 기숙사생활에 대하여 편지로 알려드리군합니다.
1 :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보충

— 담요를 깝니다.
— 이불을 덮고 잡니다.
— 이불을 갭니다.
— 침대를 잘 정돈합니다.
— 베개를 베고 잡니다.
— 옷을 옷걸개에 겁니다.
— 신발은 신장에 넣습니다.

— 방바닥을 방비로 쓸고 걸레로 닦습니다.
— 쓰레기는 쓰레받기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 세수칸에는 찬물도 나오고 더운물도 나옵니다.
— 구두를 닦고 구두약을 바릅니다.
— 다리미는 다림질칸에 따로 있습니다.
— 옷을 제손으로 다립니다.
— 어두워지면 불을 켜고 잘 때에는 꼭 불을 끕니다.
— 하불은 한주일에 한번씩 갈아줍니다.
— 방은 언제나 깨끗이 거둡니다.
— 호실비품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의 풍습을 존중합니다.
— 기숙사에서는 명절때마다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 단어

옆	영화관	신발	구두약
편리하다	능력	신	바르다
이기다	키우다	신장	다리미
방안	관리원	넣다	제손
비품	아주머니	방바닥	다리다
책장	돌봐주다	방비	어두워지다
정도	다름없다	쓸다	끄다
아침체조	어머님	걸레	하불
세수	담요	닦다	거두다
본문읽기	깔다	쓰레받기	풍습
맨	개다	담다	존중
절약	정돈	통	한자리
매일	베다	쓰레기통	모이다
내놓다	베개	세수칸	
체육관	옷걸개	더운물	

제19과. 식당

1 : 영철동무, 식사하러 갑시다.
2 : 벌써 식사시간이 되였습니까?
1 : 배고픈줄도 모르는걸 보니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읽는 모양입니다.

2 : 소설이 다 뭡니까? 숙제를 하느라고 그럽니다.
1 : 그럼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먼저 가서 상을 차리겠습니다.
2 : 고맙습니다.

1 :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2 : 예, 뭘 잡수시겠나요?
1 : 국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2 : 몇그릇 달랍니까?
1 : 두그릇만 주십시오.
2 : 더운 국에 말랍니까?
1 : 아닙니다. 찬국에다 말아주십시오. 그런데 한그릇엔 고추가루를 치지 말아주십시오.
2 : 왜요?
1 : 영철동무는 매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 : 그래요? 요구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상우에 간장, 식초, 겨자, 후추, 고추가루가 다 있으니 입맛에 맞게 쳐 잡수세요.
1 : 고맙습니다.

1 : 오늘저녁엔 영철동무가 좋아하는 국수를 청했습니다.
2 : 매번 수고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1 : 별말씀 다 하십니다. 자, 상에 가까이 나앉으십시오.
2 : 이거 국수꾸미가 아주 훌륭합니다. 닭고기, 소고기, 닭알에 꿩고기까지 있습니다.
1 : 영철동무는 매운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2 : 예, 그대신 식초를 좋아합니다.
1 : 간이 맞습니까?
2 : 조금 싱거운것 같습니다.
1 : 그럼 간장을 치십시오. 여기에 간장이 있습니다.
2 : 고맙습니다. 국물이 참 구수합니다.
1 : 예, 국수가 칠긴데다가 꾸미도 좋고 국물도 구수하니 정말 맛이 있습니다. 한그릇 더 하지 않겠습니까?
2 : 아닙니다. 한그릇 먹으니 배가 부릅니다.
1 : 그럼 이젠 도마도화채나 먹읍시다.
2 : 그걸 먹을 배가 있겠습니까.
1 : 옛날부터 밥배, 떡배, 국수배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2 : 그래요? 그럼 맛이나 좀 봅시다.
1 : 맛을 보면 다 먹지 않고는 못견딜겁니다.
2 : 정말 그렇군요. 시원한게 참 좋습니다.
1 : 접대원동무, 차림표를 좀 봅시다.
2 : 여기에 있습니다.
1 : 밥과 닭고기국을 두상 주십시오. 그리고 고기볶음과 생채, 김치도 주십시오.
2 : 청량음료는 요구되지 않습니까?
1 : 무엇이 있습니까?
2 : 맥주, 사이다, 여러가지 과일단물과 에스키모가 있습니다.
1 : 사이다 두병을 주십시오.

1 : 어서 잡수십시오.
2 : 예, 같이 듭시다. 참 닭고기국이 맛이 있습니다.
1 : 여러가지 양념이 맞춤히 들어간것 같습니다.
2 : 다른 료리들도 좋습니다. 특히 김치가 별맛입니다.
1 : 많이 드십시오.
2 : 많이 먹겠습니다.
1 : 왜 더 들지 않습니까?
2 : 많이 먹었습니다.
1 : 접대원동무, 돈을 뭅시다.
2 :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인차 가겠습니다.
1 : 모두 얼마입니까?
2 : ○○원 ○○전입니다.
1 : 자, 받으십시오. 닭고기국과 김치를 참 맛있게 먹고갑니다.
2 :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보충

— 수저를 들다
— 숟가락질을 하다
— 저가락질을 하다
— 맛이 없다
— 맛이 있다
— 입맛이 나다
— 입맛이 있다
— 입맛이 없다
— 입맛을 돋구다

— 입맛을 떨구다
— 입맛이 떨어지다
— 입맛을 잃다
— 식사를 조금 하다
— 아침을 적당히 먹다
— 점심을 많이 먹다
— 음식을 너무 짜게 먹는것은 건강에 나쁩니다.
— 나는 남새를 좋아합니다.
— 나는 빵도 좋아하고 밥도 좋아합니다.
— 식사시간을 꼭꼭 지킵니다.
— 나도 저가락질을 할줄 압니다.
— 밥을 천천히 먹는것이 좋습니다.
— 접대원동무, 김치를 한보시기 더 주십시오.
— 매일 점심식사는 야외식사를 합니다.
— 조선료리가 입에 맞습니다.
— 료리사가 음식을 참 맛있게 만듭니다.

△ 단어

갈아입다	꿩고기	차림표	숟가락
잡숫다	대신	닭고기국	저가락
그릇	간	볶다	저가락질
국	싱겁다	고기볶음	맛있다
더운국	국물	생채	입맛이 나다
말다	구수하다	김치	입맛이 있다
찬국	질기다	청량음료	입맛이 없다
고추가루	배	과일	돋구다
우	부르다	단물	입맛을 돋구다
간장	도마도	과일단물	떨구다
식초	화채	에스키모	입맛을 떨구다
겨자	도마도화채	병	입맛이 떨어지다
입맛	밥	들다	잃다
청하다	밥배	양념	입맛을 잃다
나앉다	떡	맞춤히	적당히
국수꾸미	떡배	료리	남새
닭고기	국수배	별맛	야외
소고기	견디다	잠간	야외식사
닭알	접대원	수저	료리사

△ 문법

—나요 (종결토; 물음, 높임)

○ 언제 오셨나요?

—다가 (도움토; 강조)

○ 비가 오는데다가 바람까지 붑니다.

—줄 알다 (능력)

○ 그는 피아노를 칠줄 압니다.

제20과. 상점

1: 오늘 시간을 좀 낼수 없겠습니까?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1: 평양제1백화점에 가봤으면 해서 그럽니다.
2: 그렇게 하지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1: 그럼 점심을 먹고 오후에 갑시다.
2: 뭘 사시렵니까?
1: 치약과 세수비누를 사야겠습니다.
2: 그거야 기숙사상점에서도 얼마든지 살수 있지 않습니까?
1: 난 평양에 와서 아직 평양제1백화점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구경도 할겸 가자는겁니다.
2: 아 그렇습니까? 갈 때 내 방에 들리십시오. 나도 넥타이를 하나 사겠습니다.

1: 판매원동무, 치약과 세수비누를 각각 한개씩 주십시오.
2: 어면걸 사시겠습니까?
1: 인삼을 넣어서 만든것이 있습니까?
2: 예, 인삼치약과 인삼세수비누말이지요?
1: 예, 바로 그겁니다. 값이 얼맙니까?
2: 치약은 1원 30전이고 비누는 1원 60전입니다.
1: 돈을 여기다 직접 뭅니까?
2: 예, …자, 거스름돈을 받으세요.
1: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또 오세요.

1: 판매원동무, 수고하십니다.
2: 어서 오세요.
1: 조선민요를 록음한 카세트가 있습니까?
2: 있습니다.

1: 카세트 한개에 노래가 몇곡 들어있습니까?
2: 한면에 7곡씩 들어있습니다.
1: 그러니까 량면에 모두 14곡이 들어있군요. 90분짜리입니까?
2: 예, 90분짜리입니다.
1: 노래목록을 좀 볼수 없을가요?
2: 예, 여기 있습니다. 어서 보세요.
1: 이 다섯가지를 하나씩 주십시오.
2: 예, 그렇게 하세요.
1: 한개에 얼마입니까?
2: 8원 50전입니다.
1: 빈 카세트도 있습니까?
2: 예, 《광명》표 카세트가 있습니다.
1: 빈 카세트는 한개에 얼맙니까?
2: 5원입니다.
1: 그것도 다섯개 주십시오. 모두 얼마입니까?
2: 계산기에 값이 계산되여나옵니다.

1: 판매원동무, 수고하십니다.
2: 어서 오십시오.
1: 이 옷색갈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하나 골라주십시오.
2: 매대에 들어와서 마음에 드는것을 고르십시오.
1: 이것이 어떻습니까?
2: 손님의 나이와 옷색갈에는 이 하늘색바탕에 작은 흰점이 있는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가요?
1: 예, 색갈도 좋고 무늬도 고상하고 괜찮을것 같습니다.
2: 그럼 이걸 달랍니까?
1: 예, 그걸 주십시오.
2: 다른것은 더 사시지 않겠습니까?
1: 됐습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사서 기쁩니다.
2: 그렇다면 저의 마음도 기쁩니다.
1: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가세요.

보충

— 미안하지만 여기 가까운데 상점이 없습니까?
— 손칼과 구두솔 같은걸 사자면 어느 상점에 가야 합니까?
— 잡화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안경은 어느 상점에 가야 살수 있습니까?
— 과일남새상점이 멉니까?
— 이 백화점은 몇시부터 문을 엽니까?
— 몇시에 문을 닫습니까?
— 이 상점은 어느날 쉽니까?
— 오늘은 실사를 하는 날입니다.
— 돈을 어디서 뭅니까?
— 거스름돈이 없습니다.
— 상품이 질이 높습니다.
— 값이 눅습니다.

△ 단어

치약	랑면	고상하다
비누	목록	가깝다
세수비누	비다	손칼
넥타이	광명	구두솔
각각	고르다	잡화
인삼치약	매대	잡화상점
인삼세수비누	하늘색	안경
거스름돈	바탕	과일남새상점
카세트	작다	닫다
들어있다	희다	실사
면	무늬	눅다

△ 문법

—렵니까? (종결토; 물음, 높임)
○ 어디에 가시렵니까?

제21과. 책방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1: 예, 지방에 실습을 갔다왔습니다.
2: 그렇습니까?
1: 요새 책들이 많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2: 예, 문예서적과 자연과학서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1: 문예서적은 어떤것이 들어왔습니까?
2: 장편소설 《영생》, 《력사의 대하》 그리고 재판되여나온 《빈터우에서》, 《철의 신념》, 그밖에 시집, 노래집들이 들어왔습니다.
1: 장편소설 《빈터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있습니까?
2: 전후 락원의 로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형양수기를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준 영웅적투쟁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1: 그럼 그걸 두권 주십시오.
2: 두권 사시겠습니까?
1: 같이 있는 동무에게 한권 주려고 그럽니다.
2: 참 좋은 생각입니다. 더 요구되는 책은 없습니까?
1: 기술도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2: 《콤퓨터프로그람작성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1: 좀 볼수 있습니까?
2: 그렇게 하십시오.
1: 동생한테 한권 사다주어야 하겠습니다.
2: 동생이 콤퓨터를 배웁니까?
1: 지금 수학을 전공합니다.
2: 그럼 참고서로 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1: 《현대조선말사전》은 없습니까?
2: 《현대조선말사전》을 사지 못했습니까?
1: 전 샀습니다. 조국에서 조선말을 배우는 동무가 부탁을 해서 그럽니다.
2: 다 팔리고 지금 가지고있는것은 없습니다.
1: 어떻게 한권만 구해줄수 없겠습니까?
2: 여기 주문책에다 써넣으십시오. 또 들어오면 한권 남겨두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책을 많이 샀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오십시오.
1: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보충

— 제가 부탁한 책이 들어왔습니까?
— 《새 책 안내》에 소개된 책들이 다 있습니까?

— 《새 책 안내》에 소개된 책들을 예약할수 있습니까?
— 단편소설집이나 시집 같은것이 있으면 봅시다.
— 장편소설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어린이그림책이 있습니까?
— 여기서 교과서도 팝니까?
— 외국문서적은 어디서 팝니까?
— 이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낸것입니까?
— 이 책은 재판입니까?
— 이 책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 화첩과 지도첩도 들어왔습니까?

△ 단어

문예	계급	콤퓨터
서적	로동계급	프로그람
문예서적	높이	작성법
자연과학	받들다	전공
장편소설	자력갱생	리용
영생	대형	주문책
대하	양수기	예약
재판	대형양수기	단편소설집
빈터	영웅적	어린이그림책
신념	투쟁	외국문
철	기본	외국문서적
시집	기본내용	출판사
노래집	기술	저자
전후	기술도서	지도첩
락원		

△ 문법

—기 (상토; 시킴)
　○ 가방을 맡기고 들어갑니다.
—아다/어다/여다 (접속토; 선후+이동)
　○ 소설책을 동생한테 사다주었어요.

제22과. 양복점

1: 안녕하십니까?
2: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 봄가을양복을 한벌 해입으려고 합니다.
2: 천은 가지고 오셨습니까?
1: 그냥 왔습니다. 양복점에 천이 있다기에.
2: 천이 있습니다. 이 천견본책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것을 고르십시오.
1: 고맙습니다. 이 회색천이 어떻습니까?
2: 색갈과 무늬가 괜찮은것 같습니다.
1: 그럼 이 천으로 해주십시오.
2: 어떤 모양으로 하겠습니까?
1: 홑섶으로 해주십시오.
2: 단추는 몇알짜리로 하겠습니까?
1: 두알짜리로 해주십시오.
2: 주머니는 안에다 달겠습니까?
1: 밖에 달아주십시오.
2: 안은 다 넣겠습니까?
1: 앞과 등, 소매에만 넣어주십시오.
2: 그럼 몸을 잽시다. 바지가랭이는 얼마로 하랍니까?
1: 보통으로 해주십시오.
2: 이 표를 간사하십시오
1: 며칠 있다 오랍니까?
2: 사흘후에 오십시오. 그때 시침을 합시다.
1: 그럼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가십시오.

1: 수고하십니다. 오늘 시침을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2: 어서 오십시오. 표를 봅시다.
1: 예, 여기에 있습니다.
2: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천이 맞습니까?
1: 예, 맞습니다.
2: 어서 입어봅시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1: 소매가 좀 긴것 같습니다.
2: 가만 계십시오. 예, 좀 깁니다. 한 1센치메터 줄입시다.

1 : 그렇게 해주십시오.
2 : 바지 입은게 편안합니까?
1 : 예, 편안합니다.
2 : 됐습니다. 벗으십시오. 래일 찾으러 오십시오.
1 :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2 : 다시 만납시다.

1 : 안녕하십니까?
2 : 어서 오십시오.
1 : 옷을 찾으러 왔습니다.
2 : 예, 기다리던 참입니다. 저기 옷입어보는 칸에 가서 입어보십시오.
1 : 어떻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2 : 옷을 입은게 편안하지요? 제 보기엔 몸에 맞는것 같습니다.
1 : 꼭 맞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공비는 얼마입니까?
2 : 28원입니다.
1 : 천값까지 합하면 모두 얼마입니까?
2 : 140원입니다.
1 : 이번에 수고를 많이 끼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또 오십시오.

보충

— 외투를 지을수 있습니까?
— 옷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 옷소매를 좀 줄여주십시오.
— 봄가을외투를 맡기려고 합니다.
— 바지가랭이를 좀 줄여주십시오.
— 안감과 심지감도 가지고 왔습니다.
— 단추는 가지고 온걸 달아주십시오.
— 모자를 씁니다. (벗습니다)
— 단추를 채웁니다. (벗깁니다)
— 넥타이를 맵니다. (풉니다)
— 허리띠를 띱니다. (풉니다)
— 목도리를 감습니다. (풉니다)
— 단추를 답니다. (뗍니다)
— 옷을 재단합니다.
— 재봉을 잘합니다.

△ 단어

양복점	사침	안감
봄가을양복	길다	심지
벌(한~)	가만	심지감
그냥	센치	모자
견본	줄이다	쓰다
천	벗다	채우다
단추	참	매다
알	가공	띠다
주머니	비	감다
달다	가공비	목도리
소매	소매	떼다
재다	옷소매	재단
바지가랭이	외투	재봉
견사하다	봄가을외투	
사흘	감	

△ 문법

—기에 (접속토 ; 원인)
ㅇ 찾는다기에 왔습니다.

제 2 3 과. 우편국

1 : 수고하십니다.
2 :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1 : 집에다 전보를 한장 치자고 합니다.
2 : 저기 상우에 전보종이가 있습니다.
1 : 전보문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2 : 처음에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쓰고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전보내용을 쓰십시오. 맨 아래칸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쓰면 됩니다.
1 : 됐습니까?
2 : 예, 잘 썼습니다.
1 : 전보료금이 얼마입니까?
2 : 11원 50전입니다. 령수증을 받으십시오.
1 :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안녕히 가세요.

1 : 안녕하십니까?

2 : 어서 오십시오.
1 : 전화를 걸수 있습니까?
2 : 예, 시외전화입니까?
1 : 아닙니다.
2 : 그럼 이 전화를 리용하십시오.
1 : 고맙습니다.

1 : 여보시오. 평양항공역입니까?
2 : 예, 그렇습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류학생입니다.
2 : 예, 말씀하십시오.
1 : 오늘 모스크바—평양행 비행기가 제시간에 옵니까?
2 : 예, 제시간에 옵니다.
1 : 고맙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 : 말씀하십시오.
1 :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가 오늘 있습니까?
2 : 예, 있습니다.
1 : 몇시에 뜹니까?
2 :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1 : 친절히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 안녕히 계십시오.

1 : 류학생조선어강좌입니까?
2 : 그렇습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전 ○○실습생 ○○○입니다. 전화로 실례합니다.
2 : 일없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 : 미안하지만 우리 회화선생님을 좀 바꿔주실수 없겠습니까?
2 : 최선생님말입니까?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1 : 알았습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전 ○○○입니다. 선생님, 바쁘시겠는데! 전화를 해서 안됐습니다.
2 : 일없습니다.
1 : 선생님,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2 : 어서 말씀하십시오.
1 : 오늘밤 묘향산견학을 가는데 몇시까지 정거장에 나가야 합니까?
2 : 11시까지 나가면 됩니다.
1 : 선생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정거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2 : 그럼 정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1 :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2 : 안녕히 계십시오.

1 : 이 편지를 등기로 부치려고 합니다.
2 : 그렇게 하지요. 이 우표를 붙이십시오.
1 : 여기다 붙이면 됩니까?
2 : 예, 령수증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1 : 항공우편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2 : 8호구에서 취급합니다.
1 : 항공우편에 쓸 봉투 몇장 주십시오.
2 : 몇장이면 되겠습니까?
1 : 다섯장이면 됩니다.
2 : 자 받으십시오.
1 : 고맙습니다.

보충
— 편지를 보냅니다.
— 편지를 받습니다.
— 전보를 칩니다.
— 전보를 받습니다.
— 소포를 보냅니다.
— 소포를 받습니다.
— 전화를 겁니다.
— 전화를 받습니다.

△ 단어

우편국	료금	베이징
전보	전보료금	뜨다
장(한~)	령수증	출발
전보종이	여보시오	류학생조선어
전보문	시외	강좌
방법	시외전화	등기
주소	항공	부치다
줄	평양항공역	우표
바꾸다	류학생	취급
아래칸	모스크바	봉투

제24과. 병원

1：수고하십니다.
2：어서 오십시오.
1：접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2：병력서번호가 얼마입니까?
1：전 오늘 병원에 처음 옵니다.
2：그럼 접수를 새로 해야겠습니다.
1：그렇게 해주십시오.
2：이름과 나이, 직장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1：이름은 김영수, 나이는 스물둘, 조선어문학부 어학과 2학년 학생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2：어느 과에 가시겠습니까?
1：내과에 가겠습니다.
2：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곧 병력서를 내과에 가져가겠습니다.
1：고맙습니다.

1：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여기 앉으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1：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픕니다.
2：어디 좀 봅시다. 웃옷을 벗으십시오. 숨을 크게 쉬십시오.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1：어제 오후부터 열이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열을 재봅시다. 38도 5부입니다. 기침은 나지 않습니까?
1：기침도 이따금 납니다.
2：입맛이 없지요?
1：예, 오늘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2：감기입니다.
1：그렇습니까?
2：그런데 좀 심합니다. 이제 약처방을 떼드릴테니 약국에 가서 약을 타서 잡수십시오.
1：알았습니다.
2：이건 주사지시표입니다.
1：주사도 맞아야 합니까?
2：감기가 좀 심해져서 주사도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염으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1：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2：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은 다음에도 낫지 않으면 또 오든지 전화를 걸든지 하십시오.
1：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 열이 나면서 몸이 떨립니다.
— 맥이 없습니다.
— 식은땀이 납니다.
— 배가 아픕니다.
— 이가 쏩니다.
—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상했습니다.
—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 혈압을 잽니다.
— 혈압이 높습니다.
— 피검사를 합니다.
— 침을 놓습니다.
— 뜸을 뜹니다.
— 약을 바릅니다.
— 붕대를 감습니다.
— 수술을 합니다.

△ 단어

병력서	약	식은땀
직장	처방	이
어학과	약처방	잠이 오다
내과	터(갈~이니)	다리
가져가다	약국	상하다
아프다	주사	어지럽다
머리	지시	피
웃옷	주사지시표	검사
숨	주사를 맞다	피검사
쉬다	심해지다	침
열	폐염	침을 놓다
부(37도 5~)	낫다	뜸
기침	떨리다	뜨다
감기	맥	붕대
심하다	맥이 없다	수술

제25과. 정거장과 비행장

1 : 안녕하십니까?
2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1 :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2 : 청진에 출장을 갑니다.
1 : 그렇습니까? 먼데 수고하시겠습니다.
2 : 동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1 : 어머님이 오신다고 해서 마중나왔습니다.
2 : 어머님이 어디서 사십니까?
1 : 혜산에 계십니다.
2 : 그럼 혜산—평양 급행차로 오시겠군요.
1 : 예, 그 차로 오십니다. 이거 바쁘시겠는데 시간을 지체시켜 미안합니다.
2 : 일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기차시간이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
1 : 저기 물음칸이 있습니다.
2 : 그럼 거기 가서 물어봐야겠군요.
1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2 : 안녕히 계십시오.

1 : 안내원동무, 청진방면으로 가는 렬차가 하루에 몇번 있습니까?
2 : 네번 있습니다.
1 : 급행은 몇시에 있습니까?
2 :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1 : 낮에 가는건 없습니까?
2 : 그건 준급행입니다.
1 : 몇시에 있습니까?
2 : 이제 40분후에 떠납니다.
1 : 차표를 어디에서 팝니까?
2 : 2층에서 팝니다.
1 : 손님이 많겠지요?
2 : 청진쪽으로 가는 차가 많아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1 : 친절히 가르쳐주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편히 다녀가십시오.

1 : 기차표를 좀 삽시다.
2 : 어디까지 가십니까?
1 : 청진까지 갑니다.

2 : 몇장을 요구하십니까?
1 : 한장 주십시오.
2 : 침대를 리용하지 않겠습니까?
1 : 침대표까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2 : 표를 받으십시오.
1 :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 잘 다녀가십시오.

1 : 렬차원동무, 수고하십니다.
2 : 어서 오십시오.
1 : 이 차량에 상급침대가 있습니까?
2 : 예, 표를 주십시오.
1 : 여기 있습니다.
2 : 3호실로 가십시오. 표는 제가 가지고있다가 청진에서 내릴 때 드리겠습니다.
1 : 고맙습니다.
2 : 즐겁게 려행하시기 바랍니다.

1 : 평양—모스크바행 비행기가 한주일에 몇번 있습니까?
2 : 두번 있습니다.
1 : 모스크바에서 평양에 오는 비행기도 같습니까?
2 : 예, 같습니다.
1 : 어느날 떠나고 어느날 옵니까?
2 : 화요일과 목요일에 떠나고 월요일과 수요일에 옵니다.
1 : 화요일에 떠나는 비행기표를 주문합시다.
2 : 그건 벌써 다 팔렸습니다.
1 : 그럼 목요일에 가는 비행기표를 주문합시다.
2 : 예, 몇장이면 됩니까?
1 : 두장이면 됩니다. 언제 표를 받으러 오랍니까?
2 : 지금 가지고 가십시오.
1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 편히 다녀가십시오.

1 : 세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2 : 2층에 있습니다. 세관수속을 하려고 합니까?
1 : 예.
2 : 어느 나라 말로 쓰겠습니까?
1 : 영어로 쓰겠습니다.
2 : 금지된 물건은 없겠지요?

1: 없습니다.
2: 좋습니다. 짐을 달아야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 손짐은 20키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1: 알고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읽을 책과 세면도구가 있습니다.
2: 좋습니다. 행복한 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충
— 나들표 석장을 주십시오.
— 어느 홈으로 나가야 원산으로 가는 차를 탈수 있습니까?
— 렬차도착시간이 다 됐습니다.
— 기다림칸에 가서 기다립시다.
— 차표를 찍어줍시다.
— 차창을 좀 엽시다.
— 정거장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바래주는 사람, 마중나온 사람들로 늘 붐빕니다.

△ 단어

청진	기차표	키로(다섯~)
출장을 가다	침대표	도구
마중	렬차원	세면
급행차	차량	세면도구
지체	상급침대	려행
기차시간	비행기표	나들다
물음칸	세관	나들표
다녀오다	수속	기다림칸
안내원	영어	찍다
방면	물건	차창
준급행	짐	붐비다
차표	달다	
복잡하다	손짐	

△ 문법
—던데 (접속토; 목격, 전제)
 ○ 김동무가 왔다던데 어데 있어요?

제26과. 운동과 경기

1: 영남동무, 탁구를 치지 않겠습니까?
2: 칩시다.
1: 철수동무도 탁구를 칠줄 압니까?
2: 잘 치지 못하지만 좀 칠줄 압니다.
1: 그도 데리고 가서 함께 칩시다.
2: 탁구채와 탁구공을 가지고 갑니까?
1: 탁구장에 다 있습니다.
2: 그럼 쳐봅시다.

1: 그물이 좀 높지 않습니까?
2: 아니, 규정대로입니다.
1: 영남동무와 철수동무가 먼저 치십시오. 내가 심판을 서겠습니다.
2: 아닙니다. 먼저 치십시오.
1: 그러지 말고 먼저 치십시오.
2: 이것 참 안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치겠습니다.
1: 영남동무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철수동무가 처넣기를 하겠습니다.
2: 련습공을 몇알 주십시오.
1: 련습 다섯, … 련습 그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동무 처넣기, 영남동무 받기, 령대령 …령대 일, 일대 일 일대 사, 처넣기 바꿔!
십사대 이십일, 1회전 끝.
이대 일로 영남동무가 이겼습니다. 영남동무의 솜씨가 괜찮습니다. 철수동무도 좀 더 숙련하면 우수한 선수로 될수 있겠습니다.
2: 선수들을 따라가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1: 동무는 무슨 경기를 좋아합니까?
2: 축구를 좋아합니다.
1: 축구를 잘합니까?
2: 축구를 괜찮게 하지만 남들이 하는것을 보기 더 좋아합니다.
1: 그럼 마침 잘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축구경기가 진행됩니다.
2: 무엇을 계기로 진행되는 경기입니까?
1: 《만경대상체육경기》라고 하는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계기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2 : 해마다 진행됩니까?
1 : 예, 해마다 봄에 전통적으로 진행됩니다.
2 : 축구는 주로 어느 경기장에서 합니까?
1 : **김일성**경기장, 5월1일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서산축구경기장에서 합니다.
2 : 오늘 하는 경기는 예선경기입니까?
1 : 예, 예선경기입니다.
2 : 경기대전표가 없습니까?
1 : 여기 있습니다.
2 : 어디 좀 봅시다.
1 :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오후 3시부터 《평양시》팀과 《월비산》팀이 하고 5월1일경기장에서는 같은 시간에 《압록강》팀과 《기관차》팀이 합니다.
어느 경기를 볼가요?
2 : 난 《압록강》팀과 《기관차》팀이 하는 경기를 봤으면 합니다.
1 : 좋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하고 천천히 떠납시다.
2 : 미안하지만 좀 빨리 떠납시다. 경기장구경도 할겸…
1 : 5월1일경기장을 아직 구경못했습니까?
2 : 예, 본다본다 하면서 하루이틀 미룬것이 아직…
1 : 그렇습니까? 그럼 인차 떠납시다.
2 : 경기장이 굉장하군요.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1 : 15만명입니다.
2 : 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몇년이 걸렸습니까?
1 : 2년 걸렸습니다.
2 : 2년이요? 그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저 지붕은 꼭 락하산같군요.
1 : 예, 그래서 락하산식지붕이라고 합니다. 그래 경기장이 마음에 듭니까?
2 : 들다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아직 이런 경기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기장은 위대한 령도, 강력한 경제력, 높은 건축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 이 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경기장구경은 이만하고 우리 자리로 갑시다.
2 : 우리 자리가 어디쯤 됩니까?

1 : 3층 중간입니다.
2 : 지금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1 : 선수들이 곧 입장한다고 합니다.
2 : 아, 5분전 3시군요.
1 : 심판들이 나왔습니다.
2 : 주심과 부심들이 누군지 모릅니까?
1 : 가만, 지금 방송원이 소개합니다. 주심은 국제심판원 리철수이고 부심들은 국제심판원 박성만, 공화국심판원 최명호동무들이랍니다.
2 : 선수들이 나옵니다. 어느 팀이 《압록강》팀입니까?
1 : 오른쪽을 차지한 팀입니다.
2 : 아래우에 흰 운동복을 입었군요. 주장은 누구입니까?
1 : 5번을 단 안봉철선수입니다.
2 : 공훈체육인입니까?
1 : 아닙니다. 인민체육인입니다.
2 : 《기관차》팀이 먼저차기를 하는군요. 처음부터 《기관차》팀의 공격이 드셉니다.
1 : 《압록강》팀의 방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2 : 벌써 40분나마 공방전을 하는데도 득점이 없습니다.
1 : 전반전은 무승부로 끝날것 같습니다.
2 : 드디여 시간이 됐군요.
1 :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2 : 후반전은 더 치렬하군요.
1 : 속도가 좋은 《기관차》팀의 11번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2 : 왼쪽으로 길게 넘겼습니다.
1 : 10번선수 머리받기! 성공입니다.
2 : 귀중한 한꼴을 넣었군요

1 : 후반전시간도 다 됐습니다.
2 : 결국 2대 1, 《기관차》팀의 승리로 끝났군요. 오늘 정말 경기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1 : 밤에는 8시보도가 끝난 다음 텔레비죤에서 녀자배구경기를 봅시다.
2 : 그렇게 합시다.

△ 단어

테리다	전통	령도	공격
탁구채	**김일성**경기장	강력하다	드세다
탁구공	양각도	경제력	방어
탁구장	양각도축구경기장	전축술	만만하다
그물	예선	없이	나마
규정	예선경기	불가능	공방전
심판	대전	중간	득점
서다	경기대전표	입장	전반전
심판을 서다	팀	주심	무승부
차지하다	평양시팀	부심	드디여
처넣기	월비산팀	심판원	치렬하다
련습공	압록강팀	국제심판원	속도
받기	기관차팀	공화국심판원	잡다
대(2～ 1)	미루다	오른쪽	넘기다
솜씨	굉장하다	운동복	머리받기
숙련	수용	주장	성공
우수하다	수용능력	체육인	꼴
따라가다	기적	공훈체육인	결국
계기	지붕	인민체육인	승리
상	락하산	차다	배구
만경대상체육경기	식(락하산～)	먼저차기	녀자배구경기

△ 문법

－는지 (접속토；의문)

○ 저 동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뿐이겠습니까?(강조)

○ 일어서다뿐이겠습니까?

－ㅅ (아／어／여＋ㅅ；명령강조)

○ 뒤로 돌앗!

제27과. 사진

1：박동무, 사진이나 한장 찍고 가지 않겠습니까?
2：갑자기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1：우리들의 첫 상봉을 기념해서 한장 찍자는겁니다.
2：사진기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찍겠습니까?

1：지금 저기서 사진사가 우리를 기다리고있지 않습니까?
2：아, 저 릉라다리에서말입니까?
1：예, 어서 가서 몇장 찍읍시다.
2：그렇게 합시다.

1：수고하십니다.
2：예, 어서 오십시오.
1：천연색사진을 찍습니까?
2：예, 찍습니다, 뭘 배경으로 찍겠습니까?
1：먼저 우리들이 공부하는 **김일성**종합대학 2호교사를 배경으로 한장 찍읍시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가요?
2：아니 잘 나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2호교사를 배경으로 찍는답니다.
1：그럼 찍읍시다. 어디에 서랍니까?
2：저기 다리란간에 가서 서주세요. 둘이 같이 찍으시겠나요?
1：한번은 같이 찍고 다음엔 따로따로 찍겠습니다.
2：자연스럽게 서주세요. 자, 웃으면서…
1：사진에 날자가 나옵니까?
2：예, 나옵니다.
1：그럼 거기에다 《평양에서 만난 기념》이라고 더 써넣어주십시오.
2：그렇게 합시다.
1：다음은 독사진을 찍어주십시오.
2：같은 배경으로 찍겠습니까?
1：아닙니다. 이번에는 5월1일경기장을 배경으로 찍고싶습니다.
2：그럼 자리를 좀 옮겨야겠군요. 5메터쯤 왼쪽으로 가주세요.
1：됐습니까?
2：됐어요.
1：전 저기 대성산 주작봉을 배경으로 넣어주십시오.
2：그렇게 합시다. 규격은 얼마로 해달랍니까?
1：여기 견본에 있는것만큼 크게 해주십시오.
2：예, 그만한 규격이면 배경이 잘 나올수 있어요.
1：며칠이면 찾을수 있습니까?
2：이틀후에 보내드리겠어요. 여기에다 주소와 이름을 써주세요.
1：그것 참 좋습니다. 값은 얼마입니까?

2: 한장에 2원입니다.
1: 두장씩 더 증가해주십시오.
2: 사진은 그렇게 많이 해서 뭘 하겠나요.
1: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던 동무가 제가 평양에 오는것을 무척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에게 한장 보내주고 또 부모님한테도 보내자고 합니다.
2: 참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1: 여기서 증명서사진은 찍을수 없습니까?
2: 찍습니다.
무슨 증명섭니까?
1: 졸업증에 붙이려고 합니다.
2: 두분이 다 찍겠습니까?
1: 예, 다 찍겠습니다.
2: 그럼 같이 나란히 앉아주세요.
1: 한 카트에 둘을 다 찍습니까?
2: 예, 그렇게 하면 필림을 절약할수 있고 값도 눅으니까요.
1: 참, 그렇겠군요.
2: 앞을 똑바로 보십시오. 고개를 너무 들지 마세요.
1: 증명서사진은 언제면 됩니까?
2: 오늘중으로 되는데 바쁘지 않으면 같이 보내드리지요.
1: 그럼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가세요.

보충

— 사진이 잘되다
— 인화지가 좋다
— 사진기에 필림을 넣다
— 사진기에서 필림을 뽑다
— 필림을 현상하다
— 필림을 깨우다
— 단체사진을 찍다
— 기념사진을 찍다
— 독사진을 찍다
— 증명서사진을 찍다
— 사진첩을 만들다
— 이 필림은 한장씩 증가해주십시오.

△ 단어

찍다	독사진	나란히
상봉	옮기다	카트
사진기	주작봉	필림
사진사	규격	똑바로
다리	만큼(이~)	고개
릉라다리	이틀	인화지
천연색사진	증가	뽑다
배경	무척	단체
란간	부러워하다	단체사진
다리란간	증명서	기념사진
자연스럽다	증명서사진	사진첩
웃다	졸업증	

제28과. 거리에서

1: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읍시다.
2: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1: 3대혁명전시관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2: 평양에 처음 오십니까?
1: 처음은 아닙니다. 대학때 평양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2: 그러니 10년도 더 지났겠군요.
1: 예, 16년만에 평양에 와봅니다.
2: 참 느낌이 크겠군요.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함께 갑시다.
1: 고맙습니다. 평양역—련못동행 뻐스를 타면 되겠는데 역에 내리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군요.
2: 그럴겁니다. 저 앞으로 곧추 뻗은 거리를 따라 가면 됩니다. 마침 무궤도전차가 옵니다. 어서 탑시다.
1: 오른쪽으로도 큰길이 뻗었군요.
2: 예, 그 길을 따라 대동강을 건느면 청년거리와 통일거리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길로 빠지면 창광거리와 천리마거리로 갈수 있습니다.
1: 다음날 시간을 내서 그 거리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 그렇게 하십시오.
1: 저 건물이 평양대극장이지요?
2: 인차 알아보는군요.
1: 평양견학을 왔을 때 저 대극장에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인민대학습당도 저 대극장처럼 합각지붕

으로 지었지요?

2: 예, 저기 왼쪽으로 대학습당이 보입니다.

1: 건물이 참 볼만합니다. 여기서 보니 마치도 한무리의 두루미떼가 깃을 치며 날아오르는것 같군요.

2: 예,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이 잘 살아나게 지은 건물입니다.

1: 장서가 3000만부지요?

2: 어떻게 장서까지 알고있습니까?

1: 전 인민대학습당독자랍니다. 이번에 두달동안 인민대학습당에서 공부하게 되였습니다.

2: 참 잘됐군요. 인민대학습당 맞은켠에 주체사상탑이 솟아있습니다.

1: 예, 보입니다. 정말 하늘높이 솟아 주체의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고있군요. 래일은 주체사상탑부터 찾겠습니다.

2: 그렇게 하십시오.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1: 주체사상탑우에 전망대가 있습니까?

2: 예, 저 불타는 홰불아래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1: 전망대까지 높이가 얼마입니까?

2: 150메터입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1: 사진을 찍을수 있습니까?

2: 물론이지요.

1: 저 다리가 옥류교입니까?

2: 예, 저게 옥류교이고 그우로 릉라다리와 청류다리가 더 있습니다.

1: 여기가 만수대언덕이군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보입니다.

2: 예, 오늘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할 충성의 결의를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덕으로 오르고있습니다.

1: 예, 저기 개선문이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던것보다 더 웅장하군요.

2: 그렇겠지요. 그 오른쪽에 있는것이 **김일성**경기장입니다.

1: 그전에는 모란봉경기장이라고 불렀지요?

2: 예,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완전히 새롭게 개건확장한 다음 **김일성**경기장으로 부르게 되였습니다.

1: 수용능력이 얼맙니까?

2: 그전에는 7만명을 수용할수 있었는데 10만명으로 수용능력을 높이고 경기장의 시설들도 다 새롭게 꾸렸습니다.

1: 저 앞에 새로운 거리가 나타났군요.

2: 예, 롱흥네거립니다. 오른쪽으로 금성거리, 왼쪽으로 비파거리,

앞으로는 버드나무거리가 뻗었습니다.

1: 오른쪽에 탑이 솟아있군요.

2: 예, 영생탑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글발을 저 탑에 새겨넣었습니다.

1: 금수산기념궁전에 가려면 이 거리를 따라가야 합니까?

2: 예, 이 길로 좀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 전동차를 타고 금수산기념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저도 이번 기간에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어버이수령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 그래야지요. 이젠 다 왔습니다.

1: 여기서 내려야 합니까?

2: 예. 내립시다. 저 앞쪽으로 조금 가면 3대혁명전시관이 보입니다.

1: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자려관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2: 과학자려관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까?

1: 예, 거기에 들겠습니다.

2: 과학자려관은 동평양 문수거리에 있습니다. 저 정류소에서 떠나는 뻐스를 타면 됩니다.

1: 저 뻐스는 옥류교를 건늡니까?

2: 아닙니다. 청류다리를 건늡니다. 시간이 있으면 걸어가는게 좋습니다.

1: 거리구경을 하면서말이지요?

2: 거리구경이라기보다 경치구경을 할수 있습니다.

1: 경치가 좋습니까?

2: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뻐스를 타면 저 모란봉기슭에서 서는데 거기서 내리십시오. 그앞에 금릉동굴이 나타날겁니다. 그걸 지나면 청류다리지요. 청류다리가운데 서면 모란봉과 대동강, 릉라도가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오는데 경치가 참 대단합니다.

1: 그럼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대해주어 많은걸 배웠습니다.

2: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양에 있는 동안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길 바랍니다.

1: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2: 안녕히 가십시오.

△ 단어

말을 묻다	깃	개건
대(3~혁명)	날다	확장
전시관	날아오르다	네거리
3대혁명전시관	특성	룡흥네거리
만(10년~에)	살아나다	금성거리
느낌	장서	비파거리
방향	독자	버드나무거리
련못동	맞은켠	영생탑
뻗다	솟다	서거
무궤도	하늘높이	동지
전차	빛발	영원히
무궤도전차	누리	글발
큰길	전망대	새겨넣다
청년	불타다	궁전
청년거리	타다	금수산
통일	전경	금수산기념궁전
통일거리	옥류교	주차장
빠지다	청류다리	과학자
창광거리	언덕	려관
천리마거리	유훈	과학자려관
다음날	관철	문수거리
평양대극장	안다	정류소
가극	수많다	기가 막히다.
처녀	개선문	기슭
대학습당	웅장하다	금릉동굴
인민대학습당	모란봉경기장	가운데
무리	탄생	릉라도
두루미	완전히	안겨오다
떼	새롭다	친절하다

△ 문법

—라기보다 (라고+하기+보다)

ㅇ 이 거리는 거리라기보다 하나의 도시라고 할수 있지요.

—랍니다. (종결토 ; 알림, 높임)

ㅇ 그 애는 유명한 축구선수랍니다.

ㅇ 그가 바로 저의 친구랍니다.

본문 1

△ 송옥이네 집

송옥 : 아니 특무장동지 !

곽칠성 : 송옥동무 !

송옥 :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이게 얼마만이예요?

곽칠성 : 그렇지… 불길속에서 헤여지군 처음이지.

송옥 : 네 !

(예술영화 《어느 한 가정에서》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278페지)

△ 단어

특무장 헤여지다

불길 네

△ 문법

—예요(종결토 ; 알림, 물음, 높임)

ㅇ 여기가 우리 기숙사예요.

—지(종결토 ; 알림, 물음, 같음)

ㅇ 우리 집은 참 행복하지.

ㅇ 김동무도 최우등을 했겠지?

본문 2

△ 채석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아이구, 우물집아주머니, 수골 하셨습니다.

우물집아주머니 : 정말 수골 하누만. 우리 반장 어디 있어?

송림 : 네

우물집아주머니 : 반장, 전보가 왔어.

송림 : 전보요?

우물집아주머니 : 음, 자.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48페지)

△ 단어

아이구 우물 네 음

△ 문법

—누만(종결토 ; 알림, 같음)

ㅇ 자네들이 정말 수골 하누만.

ㅇ 올해는 봄이 빨리 오누만.

—아/어, 여(종결토 ; 알림, 물음, 시킴, 추김, 같음)

ㅇ 손님이 찾아왔어.

ㅇ 김동무가 호실에 있어?

ㅇ 편히 앉아.

ㅇ 욱이동무, 같이 가.

본문 3

△ 매봉등판.

방목공1 : 소조책임자동지가 온다!

방목공2 : 책임자동지!

방목공3 : 잘 갔다왔습니까?

방목공4 : 소조책임자동지.

태순 : 가서 앓자 않았어요?

문석주 : 앓긴! 이렇게 든든한데.

금옥 : 산매언니가 무척 기다렸는데!

문석주 : 참, 산매동문 어디 갔소?

태순 : 마을에 갔어요.

오덕길 : 올라오다 만나지 못했습니까?

문석주 : 길이 헛갈렸군. 그런데 왜?

금옥 : 언니가 왔대요.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20페지)

△ 단어

소조	책임자
앓다	마을
든든하다	헛갈리다
언니	

△ 문법

—ㄴ다(종결토 ; 알림, 낮춤)

ㅇ 아버진 래일 오신다.

ㅇ 군대동무들이 곧 떠난다. 빨리 준비를 해라.

—소/오(종결토 ; 알림, 물음, 같음)

ㅇ 박동무가 어디 있소?

ㅇ 난 래일아침 떠나오.

—군(종결토 ; 알림, 같음)

ㅇ 참 훌륭한 동무들이군.

ㅇ 만경대는 경치가 참 아름답군.

—대요 (다고 하다+여+요)

ㅇ 형님이 오늘 오신대요.

ㅇ 국제태권도경기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탔대요.

본문 4

△ 병원

억만 : 아니, 당신이 어떻게?

리씨 : 철남이가 전볼 보냈더군요.

억만 : 엉? 원 녀석두…

리씨 : 그래 몸은 어떻소?

억만 : 다 나았소.

리씨 : 원, 감기에 입원은 또 뭐유?

억만 : 그러게 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와서 인민반사업엔 일없겠소?

리씨 : 그럼 가라우?

억만 : 가긴 또 뭘…

리씨 : 사탕이나 잡수우.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132페지)

△ 단어

엉	입원
녀석	인민반
그래	사탕

△ 문법

—더군요(종결토 ; 알림, 높임)

ㅇ 모란봉엔 벌써 꽃이 한창이더군요.

ㅇ 금강산의 경치는 정말 아름답더군요.

—라우(종결토 ; 물음, 시킴, 같음)

ㅇ 내 노랠 부르라우?

ㅇ 이젠 그만 쉬라우.

본문 5

△ 소우리

문석주 : 담배 있소?
장태우 : 예, 담배를 피웁니까?
문석주 : 그저 이따금 좀…
장태우 : 산매가 뭐랍디까?
문석주 : 아니…
장태우 : 산매는 보통녀자가 아니지요.
문석주 : ?!…
장태우 : 그를 보내십시오.
문석주 : 보내다니? 그게 진심이요?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79페지)

△ 문법

—랍디까(종결토 ; 전달, 목적, 물음, 높임)
ㅇ 김동무가 뭐랍디까?
ㅇ 그 동무가 오랍디까?

—다니(종결토 ; 의혹, 같음)
ㅇ 철수동무를 보내다니? 그건 안되오.
ㅇ 열이 나다니? 감기에 걸렸소?

본문 6

△ 진주의 집

한길남(영예군인청년) : 아니? 이 사람이 너의 아버지란 말이냐?! (결혼식사진)
유복녀(광일의 동생) : 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진 돌아가셨어요. 묘는 어느 섬에 있댔어요.
한길남 : 뭐? 그럼 오태성영웅의 안해가 바로…
유복녀 : 네, 우리 엄마예요!
한길남 : 아!
유복녀 : 아저씨, 왜 그러나요?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82페지)

△ 단어

묘	안해
섬	엄마
영웅	아저씨

△ 문법

—냐(종결토 ; 물음, 낮춤)
ㅇ 언제 돌아왔냐?
ㅇ 저분이 너의 어머님이시냐?

—란말이다(라는+말+이다 ; 강조)
ㅇ 그 학생은 최우등생이란말이요.
ㅇ 이게 내 고향이란 말인가! 그새 많이도 변했구나.

본문 7

△ 기상관측소 : 인국의 집 (전화)

아버지 (기상관측소 부소장) : 애 인국아. 예보토의중인데 눈비가 내릴것 같다.
인국 : 아니 갑자기 눈비라니요?
아버지 : 기후변동이 심하구나.
오늘밤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례년보다 9도나 더 떨어질것이 예견된다.
인국 : 그래요?
아버지 : 일없겠니? 어서 내려가봐라.
인국 : 예. 예.

(예술영화 《대지에 뿌리내린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360페지)

△ 단어

애	변동	한랭전선
토의	전반	영향
눈비	전반적	례년
기후	지역	예견

△ 문법

—아／야(호격토)
ㅇ 영철아, 어디 가니?
ㅇ 영수야, 이제 오니?

—다(종결토 ; 알림, 낮춤)

ㅇ 옥이야, 아버지가 들아오셨다.
ㅇ 날씨가 추워질것 같다.

—라니요(종결토 ; 의혹, 높임)

ㅇ 옥이라니요? 원산에서 온 동무말입니까?
ㅇ 축구라니요? 롱구경기를 조직해놨는데요.

—구나(종결토 ; 알림, 감탄, 같음)

ㅇ 경치가 참 좋구나.
ㅇ 네가 왔구나. 정말 반갑다.

—니(종결토 ; 물음, 낮춤)

ㅇ 우린 언제 만경대에 가니?
ㅇ 누가 날 찾니?

—아라/어라, 여라(종결토 ; 시킴, 낮춤)

ㅇ 어서 편히 앉아라.
ㅇ 많이 먹어라.
ㅇ 공부를 열심히 하여라.

본문 8

△ 상급침대칸

최범석 : 난 영웅대회에 가면 만날수 있으리라 믿었댔소. 그런데 이렇게 허허…

옥실 : 당에서 불러줬어요. 그런데 한일없이 참가하자니 어쩐지 마음이…

최범석 : 아니 무슨 소릴 하오? 영웅이 따로 있소? 아, 스물여덟에 기둥같은 남편을 잃고도 재가도 안하고 아이들을 떳떳이 키운 그게 영웅이지!

옥실 : 부대장동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범석 : 정말 아니구!

옥실 : 고맙습니다…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31페지)

△ 단어

믿다	어찌하다	떳떳이
허허	기둥같다	부대
당	남편	부대장
참가	재가	

△ 문법

—리라(종결토 ; 추측, 의지, 낮춤)

ㅇ 지금쯤은 모두 도착했으리라.
ㅇ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자니(접속토 ; 자고 하다+니)

ㅇ 극장에 가자니 그 동문 시간이 없다고 하더군.
ㅇ 이런 일을 처음 하자니 힘들거요.

—가/이 아니구(긍정강조)

ㅇ 영수도 대학생이요?
—대학생이 아니구.
ㅇ 정말이요?
—정말 아니구.

본문 9

△ 연구소 시판실

박동수 : 아니?!

곽칠성 : 나야, 곽칠성이야.

박동수 : 특무장동지!

곽칠성 : 동수동무! 난 임자가 어데선가 살아있을거라구 언젠가 만날것이라구 믿었네.

박동수 : …

곽칠성 : 상처는 좀 어떤가?

박동수 : 일없습니다.

곽칠성 : 금석이한테서 들었네, 난 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 일하네.

박동수 : 그래요? 이렇게 만났군요.

곽칠성 : 동수동무가 어떤데서 일하는가 내 보러 왔지.

박동수 : 정말 기쁩니다.

(예술영화 《어느 한 가정에서》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276페지)

△ 단어

임자	간석지
상처	건설장

△ 문법

—ㄴ가(종결토 ; 물음, 같음)

ㅇ 조국의 하늘은 얼마나 푸른가!
ㅇ 저분이 김선생님이란 말인가?

—한테서(출발점)

ㅇ 이 말은 철수한테서 들었네.
ㅇ 누나한테서 편지를 받았어.

본문 10

△ 인국의 집

인국: 어머니
어머니: 왔구나, 인국아, 그래 대학을 졸업했다지?
인국: 과학원에 배치받았어요.
어머니: 그래? 희망대로 됐구나. 얘, 인옥아, 오빠가 왔다.
인옥: 오빠!
인국: 인옥이 잘 있었니?
어머니: 오빠가 과학원에 배치받았다는구나.
인옥: 그래요? 오빠, 축하해요.
어머니: 인옥아,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인옥: 데.
(예술영화 《대지에 뿌리내린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324페지)

△ 단어

배치 희망

△ 문법

—다지(종결토; 다고 하다+지)

ㅇ 영이가 벌써 대학을 졸업했다지?
ㅇ 형님을 만났다지? 기쁘겠네.

—아야지(아야/어야, 여야 하다+지)

ㅇ 빨리 가야지.
ㅇ 영옥아,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야지?

본문 11

△ 벌판

리운석(공작원): 아저씨.
김원국: 아니, 공작원동지가 어떻게…

리운석: 그새 두엄을 많이 내셨군요.
김원국: 허허… 뭘요.
리운석: 아저씨, 기뻐하십시오. 어제 아저씨의 입당이 비준되였습니다.
김원국: 예?!…
리운석: 입당을 축하합니다.
김원국: 고맙수다.
리운석: 아저씬 이 동네의 첫 공산당원입니다.
김원국: 공작원동무가 많이 도와주시우.
(예술영화 《농민영웅》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144~145페지)

△ 단어

공작원	내다	동네
그새	입당	공산당
두엄	비준	공산당원

△ 문법

—수다(종결토; 알림, 높임)

ㅇ 우리 고장은 참 살기 좋수다.
ㅇ 이렇게 도와주니 정말 고맙수다.

본문 12

△ 당비서방

춘심: 그만 피워요!
상억: 왜?
춘심: 누굴 질식시키자고 그래요?
상억: 하, 시어머니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더니… 거 집안이 소란하지 않으려거든 금란인 돌려보내야 하우다.
춘심: 소장은 이미 결심했어요.
상억: 글쎄 돌려보내야 하우다.
춘심: 결심했다니까요.
상억: 돌려보내야 한다니까…
춘심: 받아야 해요.
상억: 정 그렇다면 부소장 이 엄상억이는 사직서를 내겠수다.
(예술영화 《효녀》 중에서. 영화문학 《효녀》 65페지)

△ 단어

질식	시어머니 역정에	글쎄
하	개배때기 찬다	정
시어머니	소란하다	부소장
역정	돌려보내다	사직서
개	소장	
배때기	이미	

△ 문법

—거든(접속토 ; 조건)

ㅇ 김동무가 오거든 인차 나한테 보내라.

ㅇ 늦지 않으려거든 빨리 떠나게.

—우다(종결토 ; 알림, 시킴, 높임)

ㅇ 금이가 노래에선 일등이우다.

ㅇ 그만하고 이젠 좀 쉬우다.

—다니까(종결토 ; 주장, 낮춤)

ㅇ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

ㅇ 청소는 내가 한다니까.

본문 13

△ 두견산수림지

광석(청년) : 반장동무 !

송림 : 네 ?

광석 : 좀 쉴가요 ?

송림 : 아니 일없어요. 이게 몇대째예요 ?

광석 : 예, 스물한대째웨다.

송림 : 야, 눈이 녹기전에… 다 끌어내려야 할텐데. !

광석 : 예 ? 눈이 녹기전에요 ?

송림 : 아니, 그럼요.

광석 : 욕심두, 원 !

송림 : 그래야 봄철부터 전선대를 세우지요.
사람의 일은 결심할 탓이래요.

광석 : 아, 그야 그렇지요.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32페지)

△ 단어

대	아이	세우다

야	욕심	탓
녹다	전선	
끌어내리다	전선대	

△ 문법

—웨다(종결토 ; 알림, 높임)

ㅇ 난 집으로 가웨다.

ㅇ 밤낮 책만 보웨다.

—래요(종결토 ; 라고 하다+여+요)

ㅇ 래일이 봄이 생일이래요.

ㅇ 그 학급에선 영옥이가 제일이래요.

본문 14

△ 비오는 도로 자동차우

광일 : 어머니… 이젠 날 믿구 살라요.

진주 : 호, 그러자꾸나,

광일 : 나 아버지처럼 영웅될래 ?

진주 : 뭐?!

광일 : 왜 ? 사람은 마음먹기 탓이래 !

진주 : 마음먹기 탓… 그래 결심할 탓이다.

광일 : 아버지도 나도 어머니도 다 영웅이 되자. 응 ?

진주 : 아이, 그러면 《영웅가정》이 되겠구나 !
그러나… 그게 결코 헐한 일은 아니다.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친 사람한테만… 차례지는
영광이란다…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75페지)

△ 단어

호	결코	차례
마음먹다	헐하다	차례지다
응	오직	영광

△ 문법

—라요(종결토 ; 시킴, 높임)

ㅇ 이젠 좀 쉬라요.

ㅇ 우리 집에 놀러오시라요.

—자꾸나(종결토 ; 추김, 낮춤)

ㅇ 함께 가자꾸나.
ㅇ 영화나 보자꾸나.

—ㄹ／을래(종결토；알림, 물음, 갈음)

ㅇ 난 도서관에 갈래.
ㅇ 더 공부할래？

—자(종결토；추김, 낮춤)

ㅇ 인호야, 함께 그림책을 보자.
ㅇ 애들아, 체육관에 가자.

—란다(종결토；알림, 낮춤)

ㅇ 그에 아버지는 로력영웅이란다.
ㅇ 저분은 유명한 배우란다.

본문 １５

△ 상점 어린이매대

금란： 저 모자 하나 볼수 있을가요？
판매원： 네, 어서 그러세요.
금란： 털이 푸군요. 개털인가？…
판매원： 개털이라니요？ 이건 고급해리서털이랍니다.
금란： 해리서요？
판매원： 네, 우리 상업관리소에서 생산하죠. 한해에 5천장의 가죽이 나와요！
금란： 5천장？…
판매원： 하나 사시겠나요？
금란： 네, 그럼 하나 부탁하자요.

(예술영화 《효녀》중에서. 영화문학《효녀》 59페지)

△ 단어

털	상업	가죽
고급	관리소	
해리서	상업관리소	

△ 문법

—자요(종결토；자＋요)

ㅇ 동무들, 함께 떠나자요.
ㅇ 다들 뻐스에 오르자요.

본문 16

△ 역구내

수림： 저, 말 좀 묻자요.
산매： …
수림： 저, 토산리로 가자면…
산매： 나를 따라와요.
수림： 네！

△ 산길

수림： 언닌 늘 그렇게 말이 없나요？
산매： 응？ 호… 그래 넌 토산리에 누굴 찾아가니？
수림： 아버지한테 가요.
산매： 아버지가 누군데？
수림： 호호… 아버지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아버지지. 우리 아버진 거기 소조책임자예요！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23페지)

△ 단어

저　　　호호
리

본문 １７

△ 동구밖 길

길복(영웅)： 안녕하십니까？ 관리위원장동지！
송화： 길복이, 정말 영웅이 됐구만, 응？
달래： 축하해요.
부위원장： 자, 이만하면 고향에 돌아올 권리가 있지요？
모두： 예.
송화： 그러믄요. 조국에 기쁨을 주구 고향을 영광으로 떨친 사람은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돌아올수 있어요.
모두： 예！
송화： 자, 우리 영웅을 춰올립시다.
모두： 춰올리자구！

(예술영화 《도라지꽃》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54페지)

△ 단어

권리	추다
멸치다	올리다

△ 문법

－구만(종결토 ; 알림, 감음)

ㅇ 벌써 진달래가 폈구만.

ㅇ 교실이 밝구만.

－자구(종결토 ; 추김, 감음)

ㅇ 영웅들을 축하해주자구.

ㅇ 당의 배려를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하자구.

본문 18

△ 작업반사무실

인국 : 론문을 이렇게 빨리 쓰게 된건 영순동무의 방조가 있기때문이요.

영순 : 제가 뭘 도운게 있다구.

인국 : 아니요. 동무가 몇년째 기록해둔 이 작업반일지가 없었던들 론문을 어떻게 완성할수 있었겠소.

영순 : 그렇다면 저도 기쁘군요. … 래일아침 군에 가는 길에 제가 부치고 오겠어요.

인국 : 이렇게 매번 수고를 끼쳐서 안됐소.

영순 : 그동안 며칠밤 새웠는데 푹 쉬세요.

(예술영화 《대지에 뿌리내린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381폐지)

△ 단어

작업	완성	새우다
작업반	군	푹
일지	그동안	

△ 문법

－기때문(원인)

ㅇ 바람이 불기때문에 빨리 걸을수 없다.

ㅇ 내가 성공한것은 동무의 방조가 컸기때문이요.

－던들(접속토 ; 조건)

ㅇ 김동무가 도와주지 않았던들 어떻게 이 일을 끝낼수 있었겠소?

본문 19

△ 송림의 집안

송화 : 에이, 이거야 어디 보여야 쓰자, 언니!

송림 : 응?

송화 : 전기는 언제 놓는대?

송림 : 인츰, 저 눈물재너머까지는 전기가 들어왔다니까.

송화 : 야!

송림 : 전쟁만 아니였으면…

송화 : 정말 하늘아래 첫동네라더니… 언니 그 불심지 좀 돋궈줄래?

송림 : 넌 밤마다 뭘 그렇게 쓰니?

송화 : 민청결정서 초안이라나.

송림 : 민청결정서?

송화 : 응.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11폐지)

△ 단어

에이	너머	민청
인츰	전쟁	결정서
눈물	하늘아래 첫동네	초안
재	불심지	

△ 문법

－는대(－는다고 하다＋여)

ㅇ 옥이동생은 세살인데 벌써 신문을 읽는대.

ㅇ 네 말을 누가 믿는대?

－라나(종결토 ; 알림, 감음)

ㅇ 철이는 지금 군사놀이를 하고있어. 자기도 뭐 인민군대라나.

본문 20

△ 다리목

신혼부부들 : 관리위원장동지!

관리위원장(송화) : 부모님들께 드릴 선물들은 가지고 가요?

신혼부부들 : 네

관리위원장 : 꿀은?

새색시 1 : 산청두 두키로씩이나…

송화: 그래! 내 읍에서 포도술을 가지고왔어.
신혼부부들: 예?!
송화: 가져가서 부모님들께 드리세요. 우리도 래년부턴 파실술을 뽑자요. 운전사동무!
운전사: 예, 갑시다.
송화: 자, (포도술을 새식시들에게 쥐여준다).
새색시1: 이건 농장에 가지고가서 할아버지들한테나…
새색시2: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갑니다.
송화: 어서 받으라는데…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20페지)

△ 단어

꿀	포도	운전사
산청	래년	할아버지
읍	파실	

△ 문법

—께(여격토)
 ○ 부모님들께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라구.
 ○ 선생님께 인사를 드려라.
—라는데(라고 하다+는데, 시킴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 어서 앉으라는데.
 ○ 빨리 떠나라는데.

본문 21

△ 읍종합상점

금란(판매원): 할아버지, 이 가정수첩을 좀 보시라요. 할아버지 댁엔 분명히 이불장이 두개씩이나 배정되여있다구 적혀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로인: 정말인가?
금란: 네.
로인: 어디?
금란: 여기.
로인: 허허, 내 거짓말을 했네. 막내딸년이 또 시집을 가게 돼서 그러네.

어떻하겠나?
금란: 그럼 새로 주문하세요.
로인: 고맙네.
금란: 안녕히 가세요.
(예술영화 《효녀》 중에서. 영화문학 《효녀》 9페지)

△ 단어

수첩	거짓말
댁	막내딸
분명히	년
배정	시집

△ 문법

—나(종결토; 물음, 같음)
 ○ 무슨 책을 사겠나?
 ○ 벌써 가나?

본문 22

△ 금석의 집.

은주: 오빠!
송옥(금석의 어머니): 어 금석이 왔구나! 저 키 좀 봐요. 저러다간 아버지보다 더 크겠다… 그래 어떻게 됐니?
금석(고등중학교 졸업반): 뭐요?
송옥: 대학 가는 문제…
금석: 예, 안가기로 했어요!
송옥: 뭐?
금석: 10만정보간석지건설청년지원자로 가기로 했어요!
송옥: 아니 뭐라구? 어른들하구 의논두 안하구?
금석: 아. 의논하나마나지요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하겠어요.
송옥: 아니 당신은 알고있었어요?
(예술영화 《어느 한 가정에서》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260페지)

△ 단어

어	지원자
저러다	의논

정보

△ 문법

－다간(다가＋는)

ㅇ 그는 아침에 왔다간 저녁때가 되여서야 돌아가군한답니다.

ㅇ 이러다간 김동무를 못보겠소.

－나마나하다(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무의미함을 표현한다)

ㅇ 사람은 집단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여서는 안되지요.

ㅇ 가나마나지요. 그 친군 집에 없으니까요.

본문 23

△ 내가

향미 : 노래 없이야 청춘이 있니? 내가 노래없이 산다는건 금붕어가 어항밖에 나와 산다는것과 같애.

윤실 : 뭘? 앤 그저…

향미 : 래일모레 군에서 선발경기를 하는데 이번엔 2중창도 있다는거야.

윤실 : 그래?!

향미 : 우리 둘이서 경연에 안나가보겠니?

윤실 : 글쎄… 될가?

향미 : 아이, 되지 않구, 그래 나가겠니, 안나가겠니?

윤실 : 아이, 모레는 쉬는 날도 아닌데…

향미 : 야, 글쎄 나가겠나 안나가겠나만 대답하라는데.

윤실 : 그럼… 나가볼가?

향미 : 겁낼건 없어, 길고 짧은거야 대봐야 알지 뭐!

윤실 : 하긴 그래.

(텔레비죤극 《종달새》 중에서. 《조선예술》 1991년 10월호 43페지)

△ 단어

금붕어	둘이서	겁내다
어항	쉬는 날	대보다
선발	대답	
2중창	집	

△ 문법

－야/이야(종결토 ; 알림, 물음, 같음)

ㅇ 옥인 참 모범학생이야.

ㅇ 그 동문 정말 좋은 동무야.

－지 않구(긍정강조)

ㅇ 살구꽃이 태양절전에 필가요?

　－피지 않구.

ㅇ 김동무가 올가요?

　－오지 않구. 그 동문 꼭 제시간에 돌아올거요.

본문 24

△ 만수대예술극장앞

현우 : 힘들지 않소?

옥주 : 아니요.

현우 : 며칠밤을 새우구두?

옥주 : 며칠을 새워두 힘든줄 모르는게 우리 일이예요. 아마 사랑의 힘때문인가봐요.

현우 : 사랑의 힘!

옥주 : 네. 애기들의 복스러운 얼굴을 들여다볼수록 우리 제도의 고마움이 가슴뜨겁게 안겨오구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군하지요.

현우 : 음… 동문 참 훌륭한 일을 하구있소. 애기들을 위한 일이라면 나도 발벗고 나서서 동무를 돕겠소!
이전처럼 백밤을 기다린대도 난 아무런 의견도 가지지 않을테요!

옥주 : 아이참.

(예술영화 《사랑의 노래》 중에서. 《조선예술》 1983년 9호 77페지)

△ 단어

애기	고마움	나서다
복스럽다	가슴	발벗고 나서다
얼굴	가슴뜨겁다	이전
들여다보다	훌륭하다	
제도	발	

△ 문법

－ㄴ가보다(추측)

ㅇ 과학자가 되는것이 그 학생의 희망인가봐요.

ㅇ 그 친구와 헤여진것이 10년전인가봅니다.

－라면(접속토 ; 가정)

ㅇ 조선사과라면 외국사람들도 다 좋아하지요.
ㅇ 소설이라면 밤잠을 모른답니다.

－ㄴ대두(－ㄴ다고 하여도)

ㅇ 비가 온대두 작업은 계속될겁니다.
ㅇ 약속을 어겼으니 비판을 한대두 대답할 말이 없게 됐지요.

본문 25

△ 계단

처녀1: 이 옷은 어디서 했어요?
향미: 우리 농장 양복점에서요.
처녀2: 머리는 어디서 했어요?
향미: 우리 농장 미용원에서 했어요.
처녀3: 저, 어느 농장에서 왔어요?
향미: 문덕군 은정협동농장, 동무들은 어디서 왔어요?
처녀4: 9월방직기계공장에서 왔어요.
향미, 윤실: 그래요?
향미: 우리 농장으루 오세요. 옷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양복점두 있구요, 머리도 이렇게 해주는 미용원도 있어요.
처녀들: 그래요?
향미: 문화회관은 또 얼마나 멋있는줄 아세요? 축구장, 롱구장, 그저 도시나 공장마을 부럽지 않답니다.
그렇지요? 영삼동무.
영삼: 응?… 그럼,

(텔레비존극 《종달새》 중에서. 《조선예술》 1991년 10월호 53페지)

△ 단어

머리를 하다	회관	롱구장
미용원	문화회관	부럽다
멋있다	축구장	

본문 26

△ 두견산 수림지

송림: 그만해라.
송화: 언니!
송림: 어찌겠니, 여기가 못사는 고장이라고 떠나는걸…

사람마다 자기의 행복을 찾아갈 권리가 있지 않니…
송화: 그러나 우리가 잘살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
송림: 잘살 때!… 송화야, 넌 정말 우리가 잘살게 되리라고 믿니?
송화: 믿어! 우린 기어이 우리 고향을 행복의 락원으로 무릉도원으로 만들고야말테야!
송림: 정말?
송화: 정말!
송림: 나도 믿는다. 어떤 사람은 백년이 있어도 안된다지만 난 10년안에 죽어두 10년안에…
송화: 언니!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39페지)

△ 단어

행복	무릉도원
기어이	죽다

△ 문법

－리라고(리라＋고)

ㅇ 더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ㅇ 래일은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야말다(강조)

ㅇ 내 힘으로 끝내고야말겠다.
ㅇ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야말것이다.

본문 27

△ 작업장

명진: 중지, 일을 중지하시오!
광호(작업반장): 왜 그러오?
명진: 중지하시오. 선로가 잘못됐답니다.
광호: 선로가?
명진: 이동시킨답니다.
광호: 이동? 어디루?
명진: 저 산꼭대기루…
길남: 산꼭대기루요?
광호: 아니, 이거 제철소조업식에 전기를 주자는거야, 뭐야?

길남: 누가 그따위 정신빠진 소릴 해요?
명진: 누군 누구야, 대장아바이지.
길남: 예? 대장이요?
광호: 아 지금쯤 며느리의 술잔을 받구 앉았겠는데 무슨 소릴하오?
명진: 돌아왔단말입니다.
광호: 뭐 돌아와?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89페지).

△ 단어

종지	조업	대장
선로	조업식	아바이
잘못되다	따위	며느리
이동	그따위	술잔
꽉대기	정신빠진 소리	

본문 28

△ 공사지휘부

책임비서: 아니, 명수동무네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허…
정명수 어머니: 아이구, 책임비서어른, 그사이 편안하셨소?
책임비서: 예, 자, 어서 앉으십시오. 하하하, 공장일이 걱정돼서 나오셨군요. 어머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정명수 어머니: 이젠 일없수다. 책임비서어른이 전번에 보내준 한약을 먹었더니 이젠 가슴이 좀 좋아졌수다.
책임비서: 그래요? 하하하… 그샌 괜히 바삐 돌아가다나니 댁에 갔던지도 퍽 오래 됐습니다. 절 욕했지요?
정명수 어머니: 아니웨다. 원 욕을 하다니요, 허허허…
책임비서: 정말입니까?
정명수 어머니: 책임비서어른.
책임비서: 예.
정명수 어머니: 이젠 우리 유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우. 아, 손주녀석이 장가들 때가 다 되였는데두 당에선 그냥 걱정을 해주니…
책임비서: 명수 아버지가 당을 위해 한목숨 바쳤는데 나라에서 무엇이 아까울게 있겠습니까?

(예술영화 《보증》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168페지)

△ 단어

허(감)	괜히	장가
비서	바삐	장가들다
책임비서	퍽	한목숨
어른	욕	아깝다
하하 (감)	유가족	
한약	손주	

△ 문법

ㅡ다나니(다+나다+니), (앞의 행동진행, 또는 상태지속이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ㅇ 소설을 읽다나니 날이 새는것도 몰랐군.
ㅇ 바쁘다나니 그사이 한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본문 29

△ 읍종합상점

명천(탄광합숙 청년): 관대원동무, 수고합니다.
춘심(주인공): 안녕하세요.
명천: 소문듣기에는 이 상점이 거 뭐 주민들의 무슨 애로나 다 풀어준다는데 헛소문이 아니요?
춘심: 헛소문이라니요?
금란: 이 상점은 동무같은 의심쟁이와 상대 안해요.
명천: 주문대장 있소?
춘심: 어느 반에서 사세요?
명천: 아직 총각이요. 탄광합숙 2층 5호요.
춘심: 성함이 뭐예요?
명천: 거기 정말 내 이름이 있긴 있소?
춘심: 네, 주민은 누구나 다.
명천: 박명천, 스물일곱이요. 동무?
춘심: 자기 이름밑에 주문상품을 적으세요!
명천: 어허, 이거 정말 내 이름이 여기 있다?!
하하! 박명천, 거 정말 신통한데!
거 쓸거 좀 주.
춘심: 어…마…나…
명천: 꼭 해결해주십시오.

춘심 : 네 하여간…
명천 : 그럼 부탁합니다.
(예술영화 《효녀》 중에서. 영화문학 《효녀》 9~10페지)

△ 단어

헛소문	총각	어허(감)
의심쟁이	탄광	신통하다
상대하다	합숙	어마나(감)
대장	성함	해결
주문대장	밑	하여간

본문 30

△ 광석의 집 마당.
우물집녀인 : 아 반장, 반장이 왔수다.
송림 : 아이, 늦어서 미안해요.
우물집녀인 : 자 이젠 시작해보라구.
송림 : (로인에게) 오셨어요.
로인 : 기다렸네.
송림 : 송화야, 축하한다!
송화 : 언니!
송림 : 광석동무, 우리 송화를 변치 말고 끝까지 사랑해주세요.
광석 : 예.
로인 : 그래야지, 야, 송화야! 이 기쁜 날에 먼저 네 언니한테 한잔 부으렴.
송림 : 어마나, 아버님!
로인 : 아니, 그런게 아닐세, 어서!
송림 : 아이, 그만둬
송화 : 언니!
송림 : 송화야! 고맙다!
송림 : 여러분, 제가 노래 한마디 부를가요? 불러도 일없지요?
모두 : 좋수다!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51페지)

△ 단어

변하다	아버님
붓다	마디

△ 문법
—렴(종결토 ; 시킴, 낮춤)
○ 할머니한테 좀 다녀오렴.
○ 이젠 좀 쉬렴.
—ㄹ세(종결토 ; 알림, 같음)
○ 영이는 참 착한 학생일세.
○ 김동문 학생이 아닐세.

본문 31

△ 상점뒤마당
명천 : 상점친구.
상억(상점부기원) : 응.
명천 : 춘심이란 처녀 있나?
상억 : 창평에 례장감 가지고 갔소.
명천 : 창평에?
상억 : 왜 그러우?
명천 : 그 처녀 길들이기 힘들겠던데…
상억 : 동무가 걱정 안해도 주인이 다 있소!
명천 : 뭐 주인이 있다구? 정말이요? 어디요?
상억 : 여기에!
명천 : 롱담두, 상점에야 남자가 있는가?
상억 : 아니, 그럼 난 남자가 아니란말이요?
명천 : 엉?
상억 : 똑똑히 알아두라구, 우리 처녀들은 일밖에 몰라, 공연히 건드렸다간 그저!
명천 : 하하!… 망을 잘 보라구, 처녀도적놈은 어디나 있으니까!
상억 : 걱정없어, 열쇠는 여기 다 있으니까!
(예술영화 《효녀》 중에서. 영화문학 《효녀》 19페지)

△ 단어

례장감	공연히	놈
길들이다	건드리다	열쇠
주인	망	
똑똑히	도적	

Δ 문법

—는가(종결토 ; 물음, 같음)

o 자넨 벌써 가겠는가?

o 우린 영웅이 되자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본문 3 2

Δ 상급침대칸

최범석(해군장령, 옛 부대장) : 아니 이게 뉘시오? 명호 어머니!

옥실(영웅의 안해, 진주 동무) : 아니?! 부대장동지!

최범석 : 이게 … 몇해만이요? 다신 못보는줄 알았더니… 아하, 찍하면 우는 그 버릇 아직 못고쳤다? 영웅의 안해 강옥실동무!

옥실 : 호호…

최범석 : 참, 휴양소 소장을 한다지?

옥실 : 네.

최범석 : 부대와 헤여진후 고생이 많았겠소?

옥실 : 아니요, 부대는 멀리 갔어도 당의 사랑이야 어디나 있잖아요?

최범석 : 고맙소! 그럼 아이들은?

옥실 : 맏이가 대학을 나오고 둘째와 셋째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있어요.

최범석 : 아 그럼 됐소. 제 아버지가 살아있던들 아들 셋을 다 대학에 보냈겠소?

옥실 : 그럼요.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30폐지)

Δ 단어

뉘	버릇	고생
아하(감)	고치다	아들
찍하면	휴양소	

본문 3 3

Δ 산길

산매 : 넌… 어떻게 오니?

수림 : 네, 거기 사는 산매라는 처녀한테 내가 대답할게 있어서요.

산매 : 대답?

수림 : 네! 그 산매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도시서 당신 딸을 데려오면 나도 영원히 여기서 살겠다. 그렇게 할수 있는가?》

산매 : 그래서…

수림 : 그래서 내가 왔죠 뭐, 이제 그 처녀를 보면 말할래요. 《아직도 소조책임자의 량심을 믿지 못하겠는가?》 그럼 그 처녀가 뭐랄가요?

산매 : 그 처녀는 이렇게 대답할게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다 너희 아버지 같았으면 우리 수령님께서와 당에서 얼마나 마음 편하시겠니》 하구…

수림 : 네?

산매 : 내가 바로 그 산매다!

수림 : 네? 정말이예요?

산매 : 그래!

수림 : 야, 산매언니! 난 수림이예요.

산매 : 수림아! 고맙다, 넌 내 동생이다!

수림 : 언니!

산매 : 수림아!

(예술영화 《자신에게 물어보라》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24폐지)

Δ 단어

너	너희
데려오다	편하다
량심	

Δ 문법

—ㄹ/을래요(ㄹ/을래+요)

o 난 지금 숙제할래요.

—랄가요(라고 하다+ㄹ가요)

o 김동무가 뭐랄가요?

—게다(것이다)

o 오늘은 비가 올게다.

o 래일도 따뜻할게다.

본문 34

△ 옥선이네 집

관리위원장: 계십니까?
옥선 어머니: 아니, 위원장동무가 우리 집엘 어떻게…
관리위원장: 예, 한가지 요긴한 사업을 토론하자구요.
옥선 어머니: 원, 저하구두 사업토론을 다 합네까? 여기 좀 와 앉으라구요.
관리위원장: 사업이래두 나한테야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요.
옥선 어머니: 뭔데… 여기 좀 앉으시우
관리위원장: 저 옥선이가 인젠 때가 됐지요?
옥선 어머니: 예? 때가 늦었지요.
관리위원장: 내 보기엔 그 사람이 괜찮습데다. 옥선이두 좋아하는 눈치던데.
옥선 어머니: 헤, 거 누구길래… 거저 위원장이 좋다면야 저두 좋수다.
관리위원장: 하하, 그럼 됐수다. 그사람 명삼이말이웨다.
옥선 어머니: 명삼이요?
관리위원장: 아니, 불에 덴 소처럼 왜 그리 넝큼 뛰시우?
옥선 어머니: 원, 난 또 읍에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관리위원장: 아, 아주머니.

(예술영화 《대지에 뿌리내린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329폐지)

△ 단어

요긴하다	눈치	불에 덴 소
때가 되다	헤(감)	넝큼
때가 늦다	데다	뛰다

△ 문법

—ㅂ네까(종결토; 물음, 높임)
 o 일요일에도 일을 봅네까?
 o 나도 가야 합네까?
—라구요(라구+요)
 o 빨리 오라구요.
 o 좀 쉬라구요.
—습데다(종결토; 알림, 목격, 높임)
 o 집이 참 좋습데다.

 o 훌룡한 가구들이 있습데다.
—길래(접속토; 원인, 조건)
 o 아침에 날이 흐렸길래 우산을 가지고 떠났어요.
 o 피곤해하길래 좀 쉬라고 했습니다.

본문 35

△ 내가의 언덕, 모닥불가

달래(송화의 딸):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이 산골농장으로 자원했단말이지요?
세룡(박원봉의 아들): 왜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군요.
달래: 아니요, 저 우리 벽계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절조는 여기다 보금자릴 펴지 말라…
세룡: 난 제절조가 아니요!
달래: 정말?
세룡: 정말!
달래: 아이, 난 달래라고 해요. 거긴?
세룡: 박세룡이요.
달래: 네? 호호 박…세룡? 하필 박가성일게 뭐람?
세룡: 아니 박가성이 어째서?
달래: 아니 괜히… 우리 어머니가 싫어해서…
세룡: 어머니가요?
달래: 아이 일없어요. 내 우리 어머니한테 잘 얘기할게요. 저 우리 어머닌 여기 관리위원장이예요.
세룡: 예? 아니 그럼? 동무 어머니가 잔송화…
달래: 아니, 우리 어머니를 알아요?
세룡: 예, 좀… 그러니 동무 이모가 송림…
달래: 아야, 이모까지? 동문 도대체 누구예요?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24 페지)

△ 단어

산골	보금자리	싫어하다
자원	펴다	얘기
이러다	하필	이모
제절조	가(뒤)	아야(감)
여기다	성	도대체

△ 문법

—는 모양이다(추측)

o 김동무가 오는 모양입니다.

o 옥이가 노랠 아주 잘 부르는 모양이군요.

—다(도움토, 강조)

o 여기에다 놓으십시오.

o 그림책을 사다 동생에게 주었어요.

—라(종결토 ; 시킴, 낮춤)

o 공부를 열심히 하라.

o 자주 편지를 쓰라.

—람(종결토 ; 물음, 같음)

o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게 무슨 친구람?

o 이게 무슨 날씨람? 겨울에 비가 오구

—ㄹ/을게요(종결토 ; 의지표시, 높임)

o 내 꼭 올게요.

o 선생님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본문 36

△ 진주의 집 부엌

한길남 : 아주…머니 …

진주 : 아니, 왜 그래요?

한길남 : 어쩌면… 사람이… 그럴수 있습니까, 예!

진주 : 네?

한길남 : 지금 섬에선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진주 : 섬?

한길남 : 매섬에서말입니다. 영웅의 넋을 배반했다고! 오해하고있습니다! 왜 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진주 : … 전 갈수 없었어요.
그 애긴 차차루 하구. 그 미생물비료라는걸 언제면 성공시킬수 있을가?

한길남 : 관리위원장동무!

진주 : 길남동무, 그 비료가 성공해서 우리 성남농장이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정보당 10톤이상이 될 때… 내 그때, 매섬에 가서… 그이를 만나보겠어요.

한길남 : ?!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기어이 성공시키고야말겠습니다!

진주 : 고마워요!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82페지)

△ 단어

넋	차차	미생물비료
배반	미생물	그때
오해	비료	그날

본문 37

△ 비탈길

억만 : 복순동무.

복순 : 어마나!

억만 :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놀라오. 그속에 뭐가 있소?

복순 : 저 더운물…

억만 : 더운물? 그런데…

복순 : 사실은 전날 광호반장이…

억만 : 광호반장이?

복순 : 식당에서 전투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보라기에…

억만 : 탁주요?

복순 : 아니 과실주… 안되나요?
… 글쎄 내 그러지 않아도 엄중하다는데 반장동문 과실준 술사촌도 아니라고 하면서.

억만 : 정신나갔군.

복순 : 아이참, 그럼 이걸 어쩌나…

억만 : 어디 좀 봅시다. 술인가 아닌가 대장이 검식하는데 별 의견 없겠지?

복순 : 어서 그래봐주세요.
술이 아니지요?

억만 : 그렇소, 아니요.

복순 : 그럼 가지고 올라가도 돼요?

억만 : 되오.

복순 : 야, 정말 고마와요!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114페지)

△ 단어

놀라다	사기	사촌
사실	탁주	정신나가다
전날	과실주	검식
전투원	엄중하다	

△ 문법

—라기에(라고 하기에)

o 다 모이라기에 이렇게들 불렀습니다.

o 우리 아버지가 좀 놀러오시라기에 찾아왔습니다.

본문 38

△ 세포비서집 방안

향미: 난 반장아저씨가 먼저 한상 차릴줄 알았는데…

세포비서: 반장아저씨야 이제 결승까지 나가 일등한 다음에 그러시는게지 쬐쬐하게 예선에서 합격한것쯤 가지구 뭘 그러니? 자, 앉자.

향미: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두 결승까지는 올라가야겠네. 그렇지? 윤실아.

윤실: 호호… 그럼.

세포비서: 많이들 먹어라, 여보, 국 들여오우.

세포비서안해의 소리—네.

향미: 아이, 내가 좋아하는 닭고기국이네.

세포비서: 자, 식사하기전에 한잔씩 합시다.

반장: 응,

세포비서: 영삼이, 수풀 했는데 들라구.

영삼: 전 뭐 별루.

향미: 그새 감기에 시달려 입맛이 없어서 그럴거예요.

세포비서: 원, 오뉴월감기는 강아지두 안걸린다는데 그 몸으루 경연엘…

향미, 윤실: 호호.

세포비서: 하하.

반장: 자, 쓰거워두 들자구, 응?

(텔레비존극 《종달새》 중에서. 《조선예술》 1991년 10월호 38페지)

△ 단어

한상 차리다	여보	강아지
결승	들여오다	오뉴월감기는
일등	별루	강아지도 안걸린다
쬐쬐하다	시달리다	쓰겁다
합격	오뉴월	

본문 39

△ 관리위원회 안

세룡: 난 더 괴로와서 못견디겠습니다. 난 27년전 저 하나의 안락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난 박원봉의 아들입니다.

로인: 뭐, 박원봉의 아들이라구?

우물집녀인: 아니…

세룡: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영웅은 못될지언정 역적은 되지 말랬는데 아버지는 고향사람들앞에 수치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그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송화: 어서 일어나요.

세룡: 용서 못하겠다는것이지요?

전… 진송림동지가 지금 우리곁에 있다면, 고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것을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최후를 마치지만 않았다 해두 전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피와 넋이 하나의 전선대, 한장의 기와장에까지 깃들어있는 이 땅을 그냥 두고 갈수가 없어서 영웅의 령전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것입니다.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55페지)

△ 단어

괴롭다	남기다	기와
버리다	젊은	땅
역적	시절	령전
나라를 위해서	죄	무릎
영웅은 못될지언정	곁	꿇다
역적은 되지 말랬다	자신	빌다
수치	희생	용서를 빌다
	최후	

△ 문법

—ㄹ/을지언정(접속토 ; 가정)

ㅇ 목숨을 버릴지언정 조국을 배반할수는 없소.

ㅇ 꺾이면 꺾일지언정 굴할줄 모르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라면(라고 하면)

ㅇ 이 대학에서 공부하라면 정말 원이 없겠군요.

ㅇ 쉬라면 좀 쉴게지 왜 또 나왔소?

본문 40

△ 관리위원장집

달래: 그럼 나 구락부에 가볼래요.

광석: 응.

달래: 아버지, 엄마 오면 세룡이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예?

광석: 음, 알았다니까.

광석: 참, 그런데 여보.

송화: 예?

광석: 새로 지원해왔다는 청년이 원봉이 아들이라는게 사실이요?

송화: 네.

광석: 사실이였구만… 여보?

송화: 예.

광석: 원봉이 생각을 하오?

송화: 아니요. 그가 떠나던 날 밤 민청회의에서 당신이 하던 말을 생각했어요.

광석: 내가?

송화: 그때 당신은 가슴을 치며 토론했지요. 고향을 사랑한 사람은 죽어서도 돌아올수 있지만 제 고향을 버린 사람은 살아있다 해두 귀향할 권리가 없다구요.

광석: 음, 원봉이가 무엇을 몰랐는가, 행복이라는게 저 멀리 노을속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끝에서 창조된다는걸 종시 깨닫지 못했거든.

참 달래한테 그 얘길 해줬소?

송화: 아니요, 그 청년이 원봉이 아들이란걸 어떻게?

광석: 아직 말하지 마오.

(예술영화 《도라지꽃》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240페지)

△ 단어

구락부 종시

귀향 깨닫다

노을

본문 41

△ 직일간호원실

운성녀인: 정말 수고해요.

옥주: 아니 아주머니가 어떻게?…

어서 와 앉으세요.

어서요.

운성녀인: 네, 이거나 좀 들어요.

옥주: 뭔데요. 아니 이건 어디서?

운성녀인: 글쎄 설순아주머니가 면회왔다가…

옥주: 설순아주머니가요?

운성녀인: 네.

옥주: 아이, 아주머니 잡숫지 않구. 뭘…

운성녀인: 우린 다 먹었어요.

옥주: 아주머니, 이러지 말구 가지고 가서 호실아주머니들과 나눠 잡수세요.

운성녀인: 야 참, 간호원동무!

정말 이러지 말라요.

옥주: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운성녀인: 간호원동무 우리 아이때문에 밤을 지새우며 고생을 하는데 난 침대에 누워서 잠만 자구 있으니…

그런데 이런 성의마저 마다하면 난 어찌라우…

옥주: 아이, 아주머니두 참…

아주머니. 저 애가 어찌 아주머니 애라고만 생각하세요? 저 애들은 나라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중히 여기는 나라의 왕들이예요. 때문에 나라에서는 저 애들을 위해 궁전을 세워주구 보석주단까지 깔아주지 않았나요? 저 남조선에서야 백만장자들이나 귀에 걸구 목에 걸구 다니는 보석을 말이예요.

운성녀인: 간호원동무, 난 요새 꿈을 꾸는것만 같아서 잠이 다 안와요.

옥주: 왜 안그러겠나요.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를 가리켜 로동

당시대에 태여나는 아이들의 집이라고 한답니다.
(예술영화 《사랑의 노래》 중에서. 《조선예술》 1983년 9월호 73페지)

△ 단어

면회	주단	꿈을 꾸다
지새우다	남	꿈을 꾸는것만 같다
마다하다	남조선	가리키다
애	백만장자	로동당
금이야 옥이야	귀	시대
귀중히	목	로동당시대
왕	꿈	
보석	꾸다	

△ 문법

ㅡ마저(도움토; 결국 그것까지 포함됨을 나타낸다)
- ㅇ 바람이 부는데다 비마저 쏟아졌지요.
- ㅇ 부대는 식량마저 떨어졌지만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본문 42

△ 산골길

해군군관(오태성): 처녀동무. 저… 군체신소에 있지요?
진주: 네.
해군군관: 한가지…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진주: 뭔데요?
해군군관: 꼭 들어주겠습니까?
진주: 군관동지의 부탁인데…
해군군관: 예, 고맙습니다! 가면서 말하지요.
진주: ?!…
해군군관: 난… 해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난 열여덟살에 군대에 입대해서 단 한번도 명령을… 상관의 명령을 집행하지 못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부대장동지가 아주 엄격한 사람인데 갓 배치된 다섯명의 군관들에게 보름동안 휴가를 주면서 무조건 결혼하고 녀자들을 데리고야 부대에 올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진주: ?!
해군군관: 래일 휴가 마지막날인데 난 여태 마음에 꼭 드는 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예?
진주: 아이, 전 먼저 가겠어요.
해군군관: 아니?
진주: 비켜줘요!
해군군관: 동무? 왜 약속을 안지키우?
진주: 네? 약속이요?
해군군관: 내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진주: 아이, 들어줄게 따로 있지, 흥.
해군군관: 동무!
(예술영화 《생의 흔적》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생의 흔적》 335페지)

△ 단어

체신소	명령	무조건
따라오다	상관	마지막
해군	집행	여태
군관	엄격하다	녀성
해군군관학교	갓(부)	비키다
군대	보름	들어주다
단	휴가	흥(감)

본문 43

△ 청년지원자들의 침실

곽칠성(지배인): 동무들. 어떻소? 마음에 드오? 내 이곳 지배인이요. 이름을 곽칠성이라고 하오.
청년들: 그렇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칠성: 앉으시오. 앉소. 앉소. 불편한데가 많지?
청년들: 없습니다.
곽칠성: 왜 없겠소? 아무래도 제집보다 못하지… 하지만 집체생활이란 해나면 인차 정이 드오. 하하.
청년 1: 저 지배인동지, 그런데 여긴 막 들끓을줄 알았는데

생각했던것보다…
곽칠성 : 들끓지. 사람대신 기계가 들끓는단말일세.
이제 더 많은 기계군단들이 오게 될게요.
청년2 : 지배인동지. 전 굴착기운전공이 희망입니다.
곽칠성 : 좋은 생각이요! 동문 고향이 어디요?
청년2 : 맹산입니다.
곽칠성 : 맹산? 산골에서 벌방으로 진출해왔구만. 하하…
좋아! 그래 동문?
청년3 : 전 열두삼천리벌입니다.
곽칠성 : 부모님은 다 계시오?
청년3 : 예. 협동농장원입니다.
곽칠성 : 음 동무이름은 뭐요?
금석 : 예, 박금석입니다.
곽칠성 : 어데서 지원해왔소?
금석 : 평양입니다.
곽칠성 : 평양?
금석 : 예.
곽칠성 : 앉소. 아버지는 뭘 하시오?
금석 : 아버지두 이 부문 사업을 합니다.
곽칠성 : 이 부문? 간석지?
금석 : 예, 과학원 지질지리학연구소 연구사입니다.
곽칠성 : 이름이 뭐요?
금석 : 박동수라고 합니다.
곽칠성 : 박동수? 아버지 고향이 남쪽이 아니요?
금석 : 예, 그렇습니다.
곽칠성 : 음
(예술영화 《어느 한 가정에서》 중에서. 영화문학작품집 《누리에 붙는 불》 263페지)

△ 단어

이곳	군단	부문
지배인	굴착기	지질
아무래도	운전공	지리
집체	벌방	연구소
정	진출	지질지리학연구소
정이 들다	열두삼천리벌	남쪽
들끓다	협동농장원	

△ 문법
—란/이란(설명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대상을 나타낸다)
ㅇ 혁명투쟁이란 어려워도 보람찬 사업이요.
—아/어, 여나다(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여러번 하다)
ㅇ 그 영화는 하두 보아나서 대사까지 외울수 있어요.
ㅇ 여기서도 살아나면 정이 붙겠지요.

본문 44

△ 빙상경기장
뚱뚱보(관람자) : 야, 19번선수가 기막힌데!
먼저번 《묘향산》팀하구 할 때두 저 선수가 혼자서 연거퍼 여섯꼴이나 넣었단말이요. 허허… 숫! 야 멋있구만!
옥주 : 저… 동무, 19번선수가 누군가요?
뚱뚱보 : 아니 동문 19번선수도 모르오? 《압록강》팀 기둥선수란말이요! 자 이결루 한번 보시오.
옥주 : 네.
뚱뚱보 : 저쪽 가운데선수요.
옥주 : 아니, 저 동무가?
어머니 : 잘 봐두어라.
옥주 : 앗.
손님 : 왜 그러시우?
옥주 : 저… 저 선수가 일없을가요?
손님 : 일없소, 아, 저런 일이 한두번이라구?
옥주 : 야, 가슴이 활랑거려서.
어머니 : 아니 뭐? 머리를 쉬게 하자구 데려온것이 되려 일을 치겠구나. 자, 어서 가자.
옥주 : 아니예요, 더 보자요.
어머니 : 어서 가자.
손님 : 아주머니, 그냥 둬두시우.
어머니 : 에이구, 손님두 참, 애 얼굴이 새파래진걸 보구두 그러시우? 애, 우리 청류관에 가서 시원한거랑 먹자.
옥주 : 야 참 어머니두.
어머니 : 자, 어서…
(예술영화 《사랑의 노래》 중에서. 《조선예술》 1983년 9월호 69페지)

△ 단어

기막히다	앗(감)	에이구(감)
연거퍼	활랑거리다	새파래지다
숫	되려	청류관
기둥	일을 치다	
기둥선수	뒤두다	

△ 문법

ㅡㄴ가요(종결토 ; 물음, 높임)

ㅇ 저분이 옥이네 선생님인가요?

ㅇ 묘향산은 경치가 어떤가요?

본문 45

△ 마을

윤실 어머니 : 윤실아.

윤실 : 예?

윤실 어머니 : 이번엔 덤비지 말구 노랠 잘 불러야 한다. 응?

윤실 : 알겠어요

처녀 : 윤실아, 잘 갔다와.

윤실 어머니 : 자, 어서 올라라.

작업반장 : 그래 결심했나?

영삼 : 후유.

반장 : 사내란 녀석이!

호철 : 자, 노래부르는데는 이 생닭알이 제일 좋대.

향미 : 윤실이한테 주면 둘이서 같이 먹을텐데 왜 나한테 주나?

호철 : 하하… 사실은 향미한테 부탁할게 있어 그래.

향미 : 뭔데?

호철 : 도에 가거든 농기계연구소에 좀 들려줘.

향미 : 응?

호철 : 이 밀폐식탈곡기때문에 그래.

향미 : 오, 먼지 안나게 탈곡한다는거.

호철 : 응.

작업반장 : 처녀들이 향미따라 너두나두 하는 날엔 자네 짝지을 반반한 처녀 하나 없어. 농촌이 홍해야 도시도 홍해!

영삼 : 하여튼 알겠어요.

향미 어머니 : 여보게, 이사람, 나 좀보세.

영삼 : 왜 그래요?

향미 어머니 : 저 부탁하는데 거 도에 올라가거든 우리 향미한테 시간을 좀 주라구.

영삼 : 시간이요?

향미 어머니 : 응, 자네가 책임을 졌다니까그래.

영삼 : 흥.

향미 어머니 : 그 애가 언니네 집 가서 요긴하게 할 일이 있다네.

영삼 : 예? 할 일이요?

향미어머니 : 응, 에이구, 뭐 그쯤 알게나. 자, 가다가 차칸에서 심심할텐데 피우라구.

(텔레비죤극 《종달새》 중에서. 《조선예술》 1991년 10월호 52폐지)

△ 단어

덤비다	농기계연구소	자네
오르다	들려주다	짝
어휴(감)	밀폐식	짝짓다
사내	탈곡	반반하다
노래부르다	탈곡기	홍하다
생(앞)	밀폐식탈곡기	하여튼
생닭알	오(감)	여보게
도	먼지	차칸
농기계	너두나두	

△ 문법

ㅡ게(종결토 ; 시킴, 같음)

ㅇ 전학준비를 잘하게.

ㅇ 고향에 가면 인차 편지하게.

ㅡ나(도움토 ; 강조, 친근감)

ㅇ 참 재미있는 소설인데 자네도 한번 읽어보게나.

ㅇ 우리 집에 좀 놀러오게나.

조선말회화(I) (류학생용)

집필 부교수, 학사 박재호	심사 부교수, 학사 김선규, 부교수,
편집 최숙경	학사 양하석, 학사 리현실
장정 주경희	교정 리태숙
낸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주체88(1999)년 6월 23일	발행 주체88(1999)년 6월 28일

고—98—111 50부 값 3원 30전